

2005년은 인천투자의 해, Buy Incheon

Good Morning  
굿모닝인천

# INCHEON

2005 | 9

제16회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9월1일~4일

## 2005 인천 노인취업박람회

9월 3일(토) 10:00~17:00 인천중소기업제품종합전시장

행사기간 \_ 박람회 : 9월 3일(토) 10:00~17:00 / On-line : 8월 22일(월)~9월 11일(일)

행사장소 \_ 인천중소기업제품종합전시장 (인천지하철 동춘역 1번 출구, 이마트 뒤)

참가방법 \_ 구직 전화접수(032-886-7552) 및 당일 현장접수 / 이력서, 신분증 지참 (참가비 무료)

참가대상 \_ 인천광역시 관내거주 만 55세 이상 취업을 희망하는 남·여

참가기업 \_ 사업자등록이 있는 업체 및 기관

### 행사내용

- 채 용 관 : 공공부문채용관, 일반채용관, 노인취업훈련관
- 테마파크 : 취업게시판, 실버쉼터 및 도서관, 고령자를 위한 서비스 및 상담관, 취업센터
- 캠페인 : 희망게시판(희망쪽지 부착을 통한 경품 제공)
- 부대행사 : 노인건강지원센터(건강상담, 안과질환검사, 치매상담 등), 멀티미디어 상영, 이력서대필, 사진촬영, 먹거리장터, 노인학대예방 사진전 및 상담창구

문의 \_ 인천노인취업박람회추진기획단 (032-866-7552~3) / 인천광역시 가정청소년과 (032-440-3957)

<http://insilver.humanpia.com>

인천광역시  
[www.incheon.go.kr](http://www.incheon.go.kr)



## 조용필, 아시아경기 유치 홍보 나서다



국민가수이자 아시아의 별 조용필 씨가 2014년 아시안게임 인천-평양 공동 개최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안상수 시장은 지난 8월 11일 오전 11시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가수 조용필 씨에게 홍보대사 위촉패를 전달하고 아시아경기대회 유치 홍보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안 시장은 “국민가수인 조용필 씨가 아시아경기대회 홍보대사로 활동하면서 평양과 인천에서 공연을 갖는 것 만으로도 아시아경기대회 유치 홍보 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씨는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홍보대사로 위촉해 준 것에 대해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아시아경기대회가 반드시 유치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답했다. 조용필 씨는 하반기 전국투어를 평양에서 시작하고 마지막 공연을 오는 10월 15일 인천문학경기장에서 투어의 피날레를 장식한다.

한편 아시안게임 인천유치단은 2014 아시안게임 인천 유치신청계획서를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에 공식적으로 제출했다. 현재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는 우리시와 인도 뉴델리 간 2파전으로 압축됐다. 내년 12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는 OCA총회에서 개최도시가 최종적으로 선정된다.



04



14



18



### 제16회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04 세계는 아시아로, 아시아는 인천으로!

06 성황봉송, 개 · 폐회식행사

08 경기일정

11 북한 참가뉴스

12 제4회 인천음식축제

28 이달의 공연 |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 초청공연 외

32 제18회 인천노동문화제

33 인천의 물류이야기 | ⑨ 물류중심지 인천의 위상

34 굿인천 굿뉴스 | 인천지하철-인천버스 환승요금할인 외

37 의정소식 | 차세대 여성지도자의 꿈 펼친다 외

38 군 · 구 풍향계 | 계양구 소음 막는 방음림조성 외

39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소식 | 셀트리온 준공식 열려 외

40 휘영청 한가위 ① | 동네에서 장보기, 인천의 특산물

44 휘영청 한가위 ② | 전통공연 즐기기

46 만화로 보는 인천의 최초 · 최고, 유일시리즈 | ⑨

48 사람 하나 만나고 싶다 · 스물한 번째 사람 | 임채경 박사

52 독자마당 | 이달의 테마 ‘애장품’

55 Info Box | 아시아육상경기대회 관련 교통 통제합니다 외

02窓 2005 | 조용필, 아시아경기 유치 홍보 나서다

14 2005 인천하늘축제

18 엄마와 함께 문화재 탐방 | ⑩ 강화 부근리 지석묘 (사적 제 137호)

22 강화고인돌축제

24 2005 인천국제약기전시회

26 2005 능허대축제

〈굿모닝인천〉은 무료로 배부됩니다. 구독문의 (032-440-2070) 광고문의 (032-440-2042, 2071)



발행처 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25 (구월동 1138번지)) 발행일 2005년 9월 1일

행정간행물 등록번호 628000000-84900-42-81 인쇄 인천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굿모닝인천〉은 <http://www.incheon.go.kr>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은 허락받은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인천광역시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표지설명 \_ 세계는 아시아로! 아시아는 인천으로! 9월 1일부터 4일까지 문학경기장에서 열리는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 *The World to Asia, Asia to Incheon!*

뛰어보자 더 빨리~ 던져보자 더 멀리~ 날아보자 더 높이~

언어가 달라도 문화가 달라도 신체적인 조건이 달라도  
스포츠에 대한 열정은 다들 앞서거나 뒤서거나 대단하다.  
인간이 직립보행을 시작한 때부터,  
육체의 한계를 넘고 싶어하던 때부터 이미 육상은 시작되었다.

9월 1일부터 9월 4일까지 4일간  
3년 만에 또다시 문학벌이 후끈 달아오른다.  
월드컵 16강 신화의 성지 문학경기장에서  
45개국 1,100여 명의 아시아 젊은이들이  
'세계는 아시아로 아시아는 인천으로' 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제16회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라는 또 다른 신화를 만들어낸다.





성화봉송 (8월 29일 ~ 31일)

## 활활 타오르는 성화속에 분단의 아픔이 녹는다

대회의 개막을 알리는 성화봉송은 8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인천 10개 군 · 구 69개 구간 200.8km에서 펼쳐진다. 8월 29일 오전 10시 30분 강화군 마니산에서 채화된 성화는 서구를 거쳐 동구와 계양구로 나뉘어 운반된다. 각각 동구와 부평구에서 1박을 한 뒤 동구의 성화는 중구, 남구, 연수구로, 또 하나는 계양구로 들어와 부평구, 남동구를 거쳐 시청에서 하나로 합화된 뒤 다시 1박을 하고 다음날 문학경기장 성화대에 점화돼 대회기간 내내 경기장을 밝힌다.

성화봉송 주자는 소년소녀가장을 비롯해 군 · 구에서 선발된 주자들 그리고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박철과 외국인 근로자 등 이색 주자들이 함께해 모두 530여 명이 달리게 된다.

또 이번 성화봉송은 구간구간 이색적으로 성화봉이 전달된다. 자전거와 인라인을 통해 각각 3.9km와 1.4km를 달리고 장애우가 함께하는 구간도 1.4km나 된다. 무엇보다 마지막 공동주자로 북한과 남한의 대표주자가 함께해 최종 점화를 한다. 경기를 치르기도 전에 무언의 일심동체가 되는 순간이다.

이렇게 60개 구간 48.2km는 소년소녀가장과 군 · 구에서 선발된 일부 주자들과 이색주자들이 전달하고 나머지 9개 구간 152.6km는 차량을 통해 성화가 전달된다.



개회식 (8월 31일)

## Rising Asia 밝아오는 동녘

대회 전야에 이미 문학벌의 열기는 뜨겁게 달궈진다. 이번 아시아육상경기대회는 흥을 돋우는 전야제 행사로 문을 연다. 8월 31일 오후 5시 50분에 '밝아오는 동녘(Rising Asia)'이라는 주제로 개막행사가 펼쳐진다. 개막행사에는 총 1,657명이 참여해 합창, 풍물, 대회 성공기원 무용 등을 공연한다. 공식행사로는 선수단 입장, 성화점화 행사 등이 진행된다. 특히 개회식에는 특별행사로 인기가수 5인조 남성댄스그룹 '동방신기'가 20분간 열띤 공연을 펼친다. 아시아의 축제인 만큼 동방신기의 이름처럼 동방의 '여심(女心)'을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개회식의 마지막은 우리시 전역에서 펼쳐지는 불꽃놀이로 대미를 장식한다. 인천시청, 자유공원, 수봉공원, 연수배수지, 부평신트리공원 등 5곳에서 개회식이 끝날 무렵 1천여발의 축포가 10여분간 인천 문학경기장 주변의 밤하늘을 장식한다.

구 분		시 간	주 요 내 용
전야제	사전 행사	17:50~18: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천지역풍물패 공연</li> <li>연예인 MC와 함께</li> <li>인천의 노래 : 아카펠라 그룹 'Voiture' 공연</li> <li>아시안예코 : 문명탄생의 땅 아시아의 세계사적 위상을 반사하는 의미의 퍼포먼스</li> <li>카운트 다운</li> </ul>
	식전 행사	18:30~19: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터벌림 :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아시아인의 평화와 안녕을 기원하는 벽사춤단원의 공연</li> <li>Asianship : 아시아 시대의 열림을 예고하는 배의 등장</li> <li>맥박 · 호흡 · 돌음 : 타악, 무용, 깃발이 어우러져 아시아의 화합을 나타내는 공연</li> </ul>
	공식 행사	19:00~2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각국 선수단 입장 · 개회선언 · 대회사 · 선수, 심판 선서 · 성화점화 등</li> </ul>
개막식	식후 행사	20:00~20: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시아의 자랑스러운 문명표출 영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차로/소통 : 하늘길, 바닷길, 땅길이 교차되는 동북아 관문으로서의 인천의 이미지를 표현</li> <li>미래로의 출발 : 미래를 향한 새로운 길의 열림과 그 길을 통한 미래로의 출발을 상징하는 희망의 배 퍼포먼스</li> </ul> </li> <li>아시안 심포니 : 비행체가 상승하면서 장중한 대회 주제가와 함께 오색찬란한 불꽃놀이가 진행</li> </ul>
	특별 공연	20:24~20:4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초청가수 특별공연 : 초청가수 인트로 영상 상영 및 공연 '동방신기' 특별공연</li> </ul>



폐회식 (9월 4일)

## Gateway to the future 미래를 여는 문

대회가 끝나는 9월 4일 오후 7시 20분부터 폐회식 행사가 '미래를 여는 문(Gateway to the future)'라는 주제로 펼쳐진다. 사전행사에서는 대회 4일간의 기록을 영상으로 보여주고 음악줄넘기 시범 등 인천지역단체의 공연이 펼쳐진다. 식전행사에는 '미래를 여는 문'이라는 폐회식의 메인 주제로 인천의 청사진을 표현하는 무용공연이 이어진다. 공식행사와 식후행사가 끝나면 특별행사로 초청가수들이 출연하는 M-net의 특별 축하공연이 펼쳐진다. 이로써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4일간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된다.

구 분		시 간	주 요 내 용
폐회식	사전 행사	19:20~19: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예인 MC와 함께, 기록의 순간, 인천 하모니, 하이라이트영상</li> </ul>
	식전 행사	19:50~2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꽃향기 속으로 오시거 : 반갑게 손님을 맞이하는 인천시민의 마음을 표현하는 전통 무용 공연</li> <li>미래를 여는 문 : 인천 미래 청사진을 표현하는 무용</li> </ul>
	공식 행사	20:00~20: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선수단 입장, 폐회선언(아시아육상연맹회장), 대회기 하강, 성화소화 등</li> </ul>
	식후 행사	20:40~20:5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우정의 연결 : 아시아의 우정을 연결하는 의미의 화합의 장</li> <li>빛의 물결로 : 미래로 열린 도시 Dream Port를 표현하는 장</li> <li>꽃을 올려라 : 아시아의 평화와 도약을 기원하는 대회 주제가 합창과 불꽃 축제(시립합창단)</li> </ul>
	특별 공연	20:55~2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M-net 스페셜 '대회 기념 특별 축하방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초대가수 특별 공개방송 진행</li> </ul> </li> </ul>



# 경기장에서 생생하게 즐기자~

한 사람의 일생동안 월드컵이나 올림픽 또는 아시안게임과 같은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가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몇 번이나 치러질까?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가 지난 1975년 서울에서 제2회 대회가 열린 이후 30여년 만에 두 번째로 우리나라에서 또다시 열리게 됐다. 16강 성지인 우리 인천 문학경기장에서 45개국 선수와 임원을 포함해 대회 역대 최대규모인 약 1,100여명이 참여해 모두 43개 종목에서 그동안 같고 닳은 실력을 겨루게 된다. 월드컵경기 이후에 묵 말랐던 스포츠 갈증을 다시 한번 문학경기장에서 시원하게 해결해 보자.



## 경기장 찾아오는길



- 서울에서 전철1호선 이용시 : 부평역에서 인천지하철 환승
- 인천지하철 이용시 : 문학경기장역 (8~9분간격 / 부평역에서 15분소요)
- 인천시내에서 : 버스 4, 6, 27, 63, 64번 (8~10분 간격)
- 고속도로
  - 경 인 고 속 도 로 : 도화C → 인하공전 → 문학경기장
  - 제 2 경 인 고 속 도 로 : 서창C → 인천대공원 → 문학경기장
  - 서창C → 남동IC → 문학C → 문학경기장
  - 서 해 안 고 속 도 로 : 서창C → 인천대공원 → 문학경기장
  - 서창C → 남동IC → 문학C → 문학경기장
  -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 공항 → 북인천C → 경인고속도로 →
  - 서인천C → 도화C → 문학경기장
  - 서 울 외 꾁 순 환 도 로 : 장수IC → 인천대공원 → 문학경기장



## 관람권 구입하기

구 분	관 람 일 시	A구역	B구역	C구역	D구역
개 회 식	8월 31일(수) 17:50~20:44	80,000	50,000	20,000	10,000
폐 회 식	9월 4일(일) 19:20~22:00	80,000	50,000	20,000	10,000
육상경기	9월 1일(목) ~ 4일(일) 08:00~19:00	전구역 2,000원			

- 입장권 예매 : 7월 22일(금) ~ 9월 4일(일)
- 현장 매표소 판매 : 8월 31일(수) ~ 9월 4일(일)
- 입장권 판매 대행사 : (주)티켓링크 (www.ticketlink.co.kr / 1588-7890-스포츠 3번)



## 9월 1일(목) the 1st day

시 간	종 목	남 · 여	라운드
15:00	100m허들	여	7중(1)
15:00	멀리뛰기	남	자격예선
15:00	포환던지기	여	결 승
15:15	100m허들	여	예 선
15:35	110m허들	남	예 선
15:50	100m	남	예 선
16:00	높이뛰기	여	7중(2)
16:10	100m	여	예 선
16:30	400m	여	예 선
16:30	세단뛰기	여	결 승
16:50	400m	남	예 선
17:00	원반던지기	남	결 승
17:10	10,000m	여	결 승
17:20	포환던지기	여	7중(3)
17:50	100m	남	준결승
18:10	1,500m	남	예 선
18:30	1,500m	여	결 승
18:40	200m	여	7중(4)
19:00	4×100m릴레이	남	예 선
19:20	4×100m릴레이	여	예 선

## 9월 2일(금) the 2nd day

시 간	종 목	남 · 여	라운드
07:30	20km경보	남	결 승
09:30	20km경보	여	결 승
09:00	멀리뛰기	여	7중(5)
09:00	400m허들	남	1차예선
09:20	400m허들	여	1차예선
09:40	100m	남	준결승
10:00	100m	여	준결승
10:20	세단뛰기	남	자격예선
15:00	해머던지기	남	결 승
16:30	높이뛰기	여	결 승
16:30	장대높이뛰기	여	결 승
16:30	100m허들	여	결 승
16:45	110m허들	남	결 승
17:00	400m	남	준결승
17:20	400m	여	준결승
17:20	멀리뛰기	남	결 승
17:20	창던지기	여	7중(6)
17:40	1,500m	남	결 승
17:50	100m	남	결 승
18:05	100m	여	결 승
18:20	3,000m장애물	남	결 승
18:35	원반던지기	여	결 승
18:40	10,000m	남	결 승
19:20	800m	여	7중(7)
19:40	4×400m릴레이	남	1차예선
19:55	4×400m릴레이	여	1차예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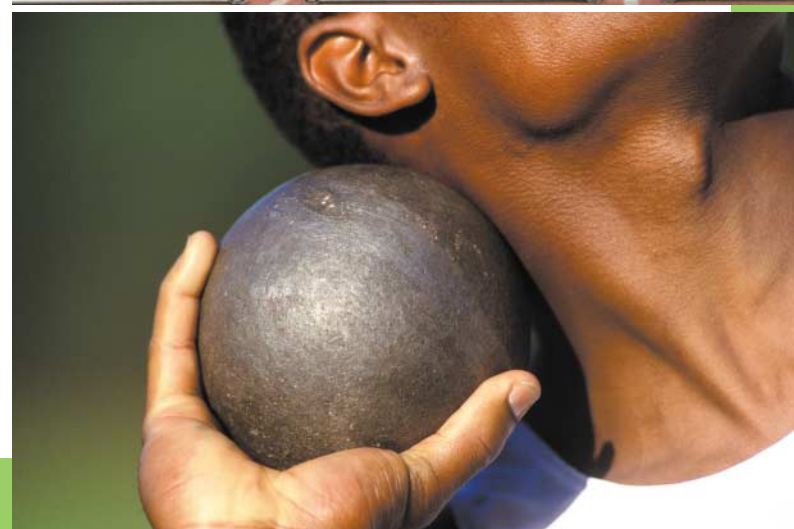
## 9월 3일(토) the 3rd day

시 간	종 목	남 · 여	라운드
10:30	100m	남	10중(1)
10:50	800m	남	1차 예선
11:10	800m	여	1차 예선
11:10	멀리뛰기	남	10중(2)
11:30	200m	남	1차 예선
12:00	200m	여	1차 예선
12:25	포환던지기	남	10중(3)
15:00	해머던지기	여	결 승
16:00	장대높이뛰기	남	결 승
16:00	세단뛰기	남	결 승
16:00	높이뛰기	남	10중(4)
16:00	400m	남	결 승
16:15	400m	여	결 승
16:30	5,000m	여	결 승
16:50	800m	남	준결승
16:50	창던지기	남	결 승
17:10	200m	남	준결승
17:30	200m	여	준결승
17:50	400m	남	10중(5)

## 9월 4일(일) the 4th day

시 간	종 목	남 · 여	라운드
09:00	110m허들	남	10중(6)
09:40	원반던지기	남	10중(7)
11:40	장대높이뛰기	남	10중(8)
15:00	400m허들	남	결 승
15:00	높이뛰기	남	결 승
15:00	포환던지기	남	결 승
15:00	멀리뛰기	여	결 승
15:00	창던지기	남	10중(9)
15:15	400mH	여	결 승
15:30	200m	남	결 승
15:45	200m	여	결 승
16:00	800m	남	결 승
16:15	800m	여	결 승
16:30	4x100m릴레이	여	결 승
16:50	4x100m릴레이	남	결 승
17:00	창던지기	여	결 승
17:10	1,500m	남	10중(10)
17:30	5,000m	남	결 승
18:10	4x400m릴레이	여	결 승
18:30	4x400m릴레이	남	결 승

문의 \_ 인천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사업홍보실  
(032)440-8131~4, www.16thaac.net



# 문학벌에 통일의 씨앗 뿌린다



이번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가 인천에서 열리고 북한이 참가 의사를 밝혔을 때 인천시민들 뿐 아니라 고향을 북녘에 두고 온 실향민들은 가슴 벅찬 기대감을 가졌을 것이다. 인천은 유난히 실향민이 많은 도시다. 그들을 비롯해 우리 모두는 문학경기장에서 휘날리게 될 인공기를 보며 가슴 설레는 통일의 꿈을 꿀 것이다.

이번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는 아시아의 화합은 물론 남북이 하나 되는 의미있는 행사가 될 것이다. 남한과 북한은 개막식과 폐막식에서 한반도기를 앞세우고 공동입장할 예정이며 성화봉송의 마지막주자로 남남북녀가 함께 점화를 하기로 했다. 7천만 우리겨레가 하나되고 36억 아시아인들이 하나가 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북한 측이 공식적으로 밝힌 대표단의 규모는 응원단이 120여명, 선수와 코치 및 임원이 20여명, 보도 및 취재단이 10명 정도로 모두 150여명이다. 북한측 응원단은 8월 31일 고려항공을 이용해 들어올 예정이고 선수단은 이보다 앞선 8월 28일

중국 베이징을 거쳐 인천으로 들어올 예정이다.

남한에서 열리는 대회에 북한 대표단이 참석하게 되면 항상 선수단보다는 응원단이 더 큰 주목을 받았다. 이번 북측의 응원은 지난해 '6·15우리민족대회'에서 우리와 함께 공연했던 평양 금성학원의 학생들로 구성된 '청년학생 협력단'이 맡는다. 노래 '휘파람'으로 유명한 전해영이 나온 이 학교는 국가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문화예술 영재교육기관이다. 북한 응원단은 대회기간동안 문학경기장에서의 응원은 물론 두 번 정도의 공연도 펼칠 예정이다. '남·북 화합대회 실현'라는 이번 대회의 목표는 그들이 참가함으로써 200% 달성될 것이다.

북한이 흔쾌히 이번 대회에 참가를 결심한 것은 우리시가 그동안 남북 화합을 위해 노력해온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지난해 우리시에서 '6·15우리민족대회'가 열렸고 지난 5월에는 안상수 시장과 박승숙 시의회 의장이 북한의 평양과 남포를 방문하고 돌아왔다. 남북 화해와 협력의 선봉에 우리시가 서 있다는 증거이다. 이러한 우리시의 노력으로 이번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 북한선수단과 응원단이 참가하게 되었고 내친김에 나아가 2014년에 있을 아시안게임유치까지도 공동추진하게 된 것이다. 남한과 북한이 공동선수단으로 국제경기에 참가한 적은 있어도 공동으로 국제적인 경기를 유치하는데 합의한 것은 유래가 없던 일이다.

글 \_ 김미희 (편집위원 · meehee75@incheon.go.kr)

## 남한엔 봉주가 있고 북한엔 봉실이가 있다

'봉봉남매'로 알려진 북한 육상의 별 '함봉실' (32·여)이 이번 아시아육상경기대회 10,000m경주에 출전한다. 함봉실은 지난 2002년 부산아시아게임에서 여자마라톤 우승을 따내 북한 육상 20년 만에 첫 금메달을 안겨준 여자 마라톤선수다. 2003년 파리에서 열린 세계선수권대회에서 2시간 25분31초를 기록하며 북한 최고기록을 세운 북한의 간판선수이다. 이번 대회에서도 한민족이 한마음이 되어 함봉실 선수를 함께 응원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



# 선수들의 ‘멋’을 볼래? 인천의 ‘맛’을 볼래?



문학경기장 안에서 육상선수들의 ‘멋’을 엿볼 수 있다면

경기장 밖에서는 인천의 ‘맛’을 느낄 수 있다.

육상경기선수권대회가 열리는 문학경기장 북문 일원에서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5일간 입맛 당기는 ‘진수성찬’이 거하게 차려진다.



인천의 맛을 대표하는 맛있는 집과 특색음식거리 등 인천의 모범업소로 꼽히는 50개 업체가 참가해 우리시의 향토음식을 소개한다. 인천의 명물 물텀병이거리, 강화의 자랑 더리미 장어거리, 인천의 화교촌에서 원조를 찾을 수 있는 북성동 자장면거리 등 직접 다리품을 팔아야 맛볼 수 있던 특색음식들을 한자리에서 쉽게 만날 수 있다.

음식축제에서는 영양체험관을 운영해 체지방 측정 등 참가자들의 영양상태와 식습관을 평가해주고 전문영양사가 상담도 해준다. 또한 터치스크린을 통해 알기 쉽게 영양식습관을 알려주고 건강식단을 소개한다. 비만이나 당뇨, 고혈압 등의 질환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식단도 전시된다.

## 오늘 하루 삼순이 되기

드라마 속 삼순이가 굽던 쿠키와 영화 속 금자씨가 만든 케익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궁금하다면 꼭 들러보아야 할 곳이 있다. 제과·제빵체험관이다. 케익 제조공정을 볼 수 있고 세계의 다양한 재료로 만든 빵을 만날 수 있다. 제과·제빵체험관에서 눈과 코가 즐거워질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먹는 즐거움과 만드는 즐거움을 경험하고 싶다면 즉석 빵만들기에 참여해보자. 온가족이 손에 밀가루를 묻혀가며 빵과 쿠키만들기에 참여한다면 이보다 더 즐거운 가족프로그램은 없을 것이다. 만든 빵을 시식할 수 있어 배도 빵빵, 선물로 가져갈 수 있어 돌아가는 두손도 빵빵해질 것이다.

이색체험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체험관 밖에서는 자장면 빨리 먹기 대회, 생선회 빨리 뜨기 대회, 케익데코 레이선대회 등 이색대회가 열린다.



## 향토음식의 맛에 문화행사의 美를 더한다

이번 음식축제에는 인천의 향토음식들을 만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문화행사도 함께 열려 여름내내 잃었던 입맛을 돋우는

에피타이저 역할을 할 것이다.

육상경기대회가 열리는 문학경기장 북문광장에서는 흥겨운 축제한마당이 벌어진다. 은울탈춤과 풍물길놀이 등의 전통민속공연은 물론, TBN 공개방송으로 이뤄지는 개막축하공연에는 송대관, 현철, 남진 등 유명가수들이 출현해 무대를 달군다. 또 무형문화재 공연, 청소년 동아리 공연 등이 마련되며 시민참여행사로 노래자랑 등이 펼쳐진다.



구 분	8월 31일(수)	9월 1일(목)	9월 2일(금)	9월 3일(토)	9월 4일(일)
오전 12시 ~ 오후 1시		은울탈춤	범패 작법무	인천근해 갯가노래 뱃노래	제4회 남구 청소년 동아리 한마당
오후 1시 ~ 2시		클라운 마임	인천시민 만만세! (문화예술동아리)	클라운 마임	
오후 2시 ~ 3시		인천시민 만만세! (문화예술동아리)	열린공연	우리 엄마뻘 (주부 동아리)	
오후 3시 ~ 6시			따뜻한만남 (음악회)		
오후 6시 ~ 7시	제16회 아시아육상경기 선수권대회 개최식	식전공연 (풍물길놀이)	댄스컴퍼니 공연 (신영자무용단)	퓨전난타 콘서트 (한울소리)	베네스토 오케스트라
오후 7시 ~ 8시		음식축제 개막식 및 개막축하공연 (TBN 공개방송)	Rock & Folk Festival (7080 콘서트)	시민노래자랑 본선 (TBN 교통방송)	제16회 아시아육상경기 선수권대회 폐회식
오후 8시 ~ 9시					
오후 9시 ~ 10시		터키댄스	밸리댄스	김광현의 뮤직 비디오 쇼	음식축제 폐막식
상설 행사	인천 대표음식 전시 및 먹거리 장터, 영양체험관, 식생활문화개선을 위한 좋은 식단 모형전시, 제과제빵 전시 체험장, 식품제조가공업체 생산품 기획전시회, 시청홍보관 운영, 요리 시연 및 경연대회				

※ 노래자랑 참가신청은 선착순 20명에 한하며 미리 신청을 받습니다.

문의 \_ 429-5111, 440-2761~5

글 \_ 김미희 (편집위원 · meehee75@incheon.go.kr) / 사진 \_ 김성환 (자유사진가 · koin1@incheon.go.kr)

## 한 걸 음 더

## 중소기업상품박람회 개최

제16회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가 열리는 문학경기장 동문 출입로에 우리 인천지역 산업을 홍보하기 위해 중소기업박람회가 열린다. 소비재 위주의 우수중소기업 제품들이 전시되며 일부상품은 판매도 한다.

일시 \_ 8월 31일(수) ~ 9월 4일(일) 인천우수중소기업 상품전시 문의 \_ 440-8131~6







2005 인천 하늘 축제  
2005 Incheon Sky Festival

# I Love Sky My buddy Sky

내 사랑 하늘, 내 친구 하늘

9월 23일(금) ~ 25일(일) 3일간

인천국제공항공사 잔디마당

인천공항여객터미널 밀레니엄홀



천고마비(天高馬肥)의 계절.

티없이 맑은 가을 하늘이 함께 날자고 우리를 유혹한다.

바닷가의 하늘은 유난히 눈이 시리도록 맑고도 푸르다.

이 가을에 아련한 창공에 시 한수 쓰고 구름 벗 삼아 두둥실 떠나가 보자.

세계의 하늘, 인천 하늘에서 하늘을 사랑하고  
하늘과 친구가 되어보자.





## 하늘에 빈자리가 있는지... 체험행사

긴 호흡 높은 호흡으로 하늘을 느껴보자. 상공 50m까지 올라가는 열기구를 타고 푸른 창공을 유유자적하며 산책해 본다. 하늘에서 내려다 본 지상 풍경은 환상 그 자체이다. 늘 다니던 거리, 끝없이 펼쳐진 바다도 다른 모습으로 다가 올 것이다.

잠시나마 파일럿이나 우주비행사가 돼볼 수 있는 기회도 있다. 비행시뮬레이션을 이용해 전투기와 여객기를 조종해 볼 수 있고 우주인들이 우주의 무중력 상태를 버틸 수 있도록 훈련하는 사이버인스페이스도 체험해 볼 수 있다. 이밖에 수직상승하는 로켓모양의 에어바운스 체험과 하늘 영상을 3D 입체로 체험할 수 있는 입체영화도 관람할 수 있다.

## 하늘 품이 얼마나 넓은지... 시연 & 전시행사

공항공사 잔디마당에서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모든 것을 만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전통 연과 외국의 대형 창작 연, 그리고 무선으로 조종하는 모형비행기(RC비행기) 등이 묘기를 부리며 파란 하늘을 날아다닌다. 어린이들이 직접 물로켓을 만들어 하늘로 날려 보내는 모습과 창작로켓이 눈깜짝할 새에 실제로 하늘 끝으로 날아가는 광경도 볼 수 있다.

모형항공기, 인공위성 및 UFO의 사진자료와 항공자료도 함께 전시되며 한국 최초 여류비행사인 박경원의 영상자료도 상영된다.

## 하늘도 음악을 좋아하는지... 공연 & 페스티벌

하늘을 테마로 한 콘서트가 매일 밤 공항공사 잔디마당에서 열린다. 개막 첫째 날은 인기 한류가수들이 대거 출연하는 하늘 음악회(MBC)가 열리고 둘째날은 락, 포크, 재즈의 삼색 라이브로 즐기는 월드뮤직 콘서트가 개최된다. 셋째날은 음악전문 DJ가 함께하는 러브 스카이 콘서트가 열린다.

이밖에 하늘과 우주항공에 대한 꿈을 심어주는 미래항공우주사생대회, 전국모형항공기대회 그리고 문화예술 동아리들이 참여하는 스카이 프린지 페스티벌이 펼쳐진다.

## 우리하늘이 얼마나 이쁜지... 전통문화공연

공항여객터미널에서는 수문장 교대의식과 나례잡희(儼禮雜戲)가 진행된다. 수문장 교대의식은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을 환영하고 편안한 여행을 기원하는 전통의례행사로 공항 입출국장에서 열린다. 여객터미널 밀레니엄홀에서 펼쳐지는 나례잡희는 부채춤, 대금연주, 화관무, 탈춤, 퓨전국악, 민요 등 우리나라 전통문화의 공연을 통해 인천공항과 한국에 대한 아름다운 이미지를 심어준다.



구 분	시 간	I LOVE SKY		Korea Art Space	My Buddy Sky
		인천국제공항공사 청사 앞 잔디광장		인천국제공항여객터미널 (밀레니엄홀 및 입출국장)	상설행사장
23일(금)	12:00~14:00	개막축하 풍물 퍼레이드			<div>〈체험 행사〉</div> <div>· 열기구</div> <div>· 크레인 행글라이딩</div> <div>· 사이버인스페이스</div> <div>· 경비행기</div> <div>· 3D 입체영화관</div> <div>· 전통연 만들기</div> <div>· 카트 제작 체험</div>
	14:00~17:00	항공인 한마당 큰잔치			
	17:00~18:00	경축행사 (전통연, 경비행기, 모형항공기 시연)			
	18:00~19:00	2005 인천하늘축제 개막식			
	19:00~21:00	하늘 음악회(MBC), 불꽃놀이			
24일(토)	12:00~13:00	<div>· 하늘사랑사생대회</div> <div>· 물로켓발사대회</div> <div>· 전국모형항공기대회</div> <div>종합시상식</div>	전통 연, 창작 연 시연	Welcome to Incheon (수문장교대식)	<div>〈전시행사〉</div> <div>· 모형항공기전시</div> <div>· 전통연 전시</div> <div>· 인공위성 사진 전시</div> <div>· UFO 자료전시</div> <div>· 항공자료 전시</div> <div>· 하늘사랑 그림 전시</div> <div>· 최초여류비행사 다큐 상영</div> <div>〈부대행사〉</div> <div>· Sky Shop</div>
	13:00~14:00		경비행기 시연	나례잡희	
	14:00~15:00		모형항공기 시연	Welcome to Incheon (수문장교대식)	
	15:00~16:00		창작 로켓발사 시연	나례잡희	
	16:00~17:00		전통 연, 창작 연 시연	Welcome to Incheon (수문장교대식)	
	17:00~18:00		경비행기 시연	나례잡희	
	18:00~19:00		모형항공기 시연		
	19:00~21:00	World Music Concert(월드뮤직 콘서트)			
25일(일)	12:00~13:00	Sky Pringe Festival	전통 연, 창작 연 시연	Welcome to Incheon (수문장교대식)	
	13:00~14:00		경비행기 시연	나례잡희	
	14:00~15:00		모형항공기 시연	Welcome to Incheon (수문장교대식)	
	15:00~16:00		전통 연, 창작 연 시연	나례잡희	
	16:00~17:00		모형항공기 시연	Welcome to Incheon (수문장교대식)	
	17:00~18:00	Love Sky Concert (하늘사랑 콘서트)		나례잡희	

**행사장 가는 길** \_ 공항고속도로를 타면 여객터미널 바로 못 미쳐 국제업무단지(공항공사, 정부종합청사)로 들어가는 길이 나온다. 쪽 따라 들어가면 잔디광장이 나온다. 공항 내 무료 순환버스(운행간격 12분 · 5분 거리)는 공항 3번 게이트 앞 3A번 버스정류장, 9번게이트 앞 9B 버스정류장에서 타고 공항청사 앞에서 내리면 된다.

**문의** \_ 인천하늘축제기획단 (505-9001~2, incheonskyfestival.com)

글 \_ 유동현 (편집위원 · batubatu@incheon.go.kr) / 사진 \_ 김정식 (자유사진가 · jsjism@incheon.go.kr)

## 세계하늘의 출발지이자 종착지 인천국제공항의 비전

인천국제공항은 1992년 제비 날던 영종도와 용이 날던 용유도 일대의 바다를 메워 건설을 시작한지 약 8년만인 2001년 3월 29일에 성공적으로 개항을 하였다. 활주로 2본, 여객계류장 126만7천 (88만평), 화물계류장 12만9천 (4만평), 여객주기장 60개소 등 최첨단의 시설을 갖춘 전천후 해상공항이다.

인천국제공항은 중추(HUB)공항으로 발전하기 위해 현재 2단계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2008년까지의 2단계 건설사업은 공항시설부지 825만 (250만평)에 활주로(길이 4,000m×60m) 1개, 탑승동 15만8천 (4만8천평) 1개, 여객계류장 108만9천 (83만평), 화물터미널 10만 (8만평), 국제업무지역 33만1천 (10만평), 여객·다목적부두 등이 추가로 건설될 계획이다. 2단계 공사가 완료되면 연간 운항회수가 24만회에서 41만회로, 여객처리능력이 3천만명에서 4천4백만명으로 늘어난다. 또한 화물처리능력이 270만톤에서 450만톤으로, 여객계류장의 항공기 주기 대수가 60대에서 108대로 각각 증가하게 된다.





# 천년의 메아리... 아이들의 고막 울리다

열세 살 동갑내기 서정준, 이지은, 고한솔은 성동학교에 다닌다.

성동학교는 청각장애아들이 다니는 학교로 6학년이라고 해야 고작 6명. 이대로 중·고등학교까지 함께 간다.

보청기를 달고 건청인과 대화할 때는 구화(口話)를 하지만 그들끼리는 수화(手話)를 한다.

개구쟁이 성준이, 꿈 많은 지은이, 책벌레 한솔이가 수 천 년을 거슬러 올라가 역사의 숨소리를 들으려한다.

이금주(이지은 엄마. 36)씨도 목청을 조심하며 아이들과 하나가 되는 방법을 선택했다.

선사시대 원시인들은 수화를 모른다.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역사의 숨결은 만질 수 있다.

천둥 같은 천년의 메아리가 고막을 울려줄 테나...







## 세계 인류의 귀중한 보물

우리나라는 고인들의 나라라고 할 만큼 수량 면에서 전 세계적으로 단연 으뜸이다. 고인들은 선사시대 사람의 무덤으로 탁자처럼 생긴 탁자식, 바둑판처럼 생긴 기반식, 궂돌 없이 땅에 놓여진 개석식 3종류로 나뉘는데 고인들은 순수우리말이고 지석묘는 일본학자들이 연구하면서 부른 것이라고 한다. 강화고인들은 중부 지역에서 보기 드문 거대한 탁자식 지석묘로 그 모습이 웅장하다.

강화군 하점면 부근리 고인돌 안내소에서 신진숙(51) 문화유산해설사가 일행을 맞이했다. “땡볕을 겁내지 마세요. 역사는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이니 눈을 크게 뜨고 청동기시대로 가 봅시다.” 해설사는 용감하게 8월 복중의 이글거리는 별판으로 나선다. 아이들도 시원한 등나무 그늘을 아쉬워하며 역사의 들판으로 따라 나섰다.

지난 2000년 11월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이 고인들은 이른바 북방식(탁자식) 지석묘라고 분류되는데 청동기시대의 대표적인 무덤 양식의 하나이다. 흙으로 바닥을 수습 층 다진 뒤 궂돌을 좌우에 세우고 한 쪽 끝에 막음돌을 세워 묘실을 만들고 시신을 넣은 다음 나머지 막음돌을 막아 무덤을 만들었다. 현재 두 끝의 막음돌은 없어진 상태이고 석실 내부가 긴 통로와 같다. 길이 7.6m 폭 5.5m나 되는 거대한 돌을 사용했으며 그 밑을 2개의 궂돌로 세워서 받쳤다. 전체의 높이는 2.6m이며 대략 남북방향으로 놓여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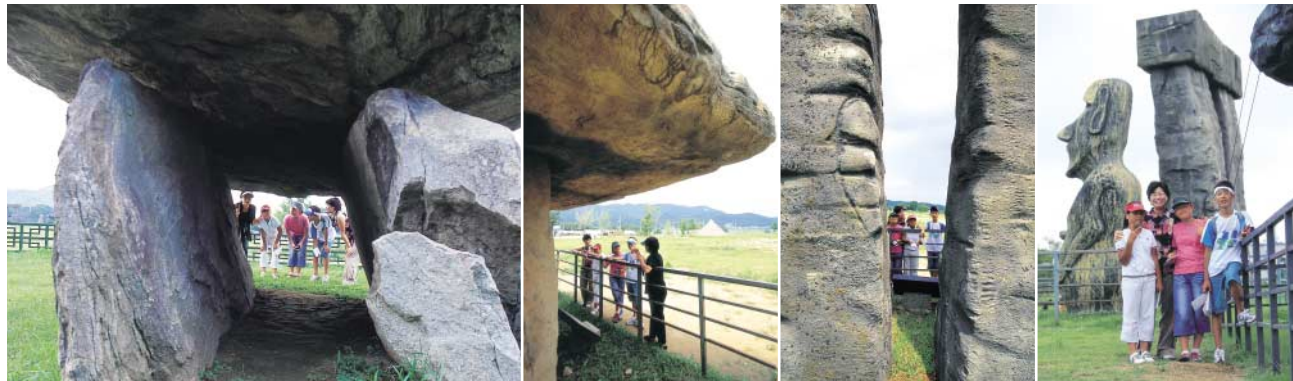
“저 큰 고인돌을 만들기 위해 몇 사람이 동원됐을 것 같아요? 그 당시 저 웅장한 거석을 장비없이 순전히 사람의 힘으로 올렸을 텐데 짐작이 안 가죠? 저 덮개돌 무게만도 50톤이나 되는데 장정 500~600명의 노동력이 있어야 축조가 가능했다고 해요.”

“그렇다면 이 지역에 많은 사람이 살았다는 건데… 돌의 크기가 죽은 사람의 신분에 따라 다르다면서요? 그럼 권력자의 무덤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지은이 엄마는 타임머신이라도 타고 아주 먼 옛날 족장을 만나고 온 듯 연신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을 아이들에게 설명해주기 바쁘다.

“돌이 무거워 기울어졌어.” 지은이가 궁금증을 겨우 털어낸다.

“양쪽 궂돌을 여간 튼튼하게 땅에 박지 않고는 50톤 덮개돌을 지탱하기 힘들지요. 땅속에 3분의 2가 잠겼다는 군요. 그 보다 더 놀라운 것은 궂돌 두개가 20도나 기울어져 받치고 있는데 2~3천년을 쓰러지지 않고 버텨온 거예요. 건축가들 말에 의하면 한번 건물이 기울기 시작하면 금방 무너지는데 원래부터 기울이지 않았나, 추측하죠. 현대과학의 힘으로도 밝힐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터에 고인돌만 달랑 있었다. 문화재에 대한 인식부족 등으로 학생들이 이곳에 오면 그냥 큰 바위구나 생각하고 위에 올라가 눕고, 뛰어내리고 하면서 놀았다고 한다. 세계문화유산 등록 후 잡풀이 무성했던 밭과 공터였던 곳을 공원으로 만들고 해마다 가을이면 강화고인돌축제를 연다.



## 원시인과 현대인의 만남 장소

한솔이는 사회역사시간에 고인돌을 봤다며 고인돌 만들기 체험 장소로 손을 끌었다. 궂돌, 막음돌, 덮개돌 이름을 불러가며 과정을 재현했다. 성준이는 비석치기 할 돌을 골라놓고 지은이는 팔방놀이 금 그을 뽕족한 돌을 발 사이에 감춰 왔다. “애들아! 돌이 손바닥만 하지만 우리 무거운 척 하고 들어보자. 덮개 돌은 50톤이나 된다고 했잖아. 여영차~” 엄마는 거짓도 용케 잘 써 먹는다.

대기의 더운 열기와 비온 뒤 땅의 습기가 마주쳐 후텁지근한 날씨다. 모자챙이 겨우 눈 밑 그늘을 만들어 준 것 외엔 중천에 뜬 해는 야박하기 그지없이 강화별판을 내리쬐다. 쭈그리고 앉았다 일어나니 현기증이 돈다. 이마에 손을 얹고 움집으로 향했다.

해설사는 “움집은 요즘말로 하면 반지하 같은 곳이에요. 신석기시대부터 농업이 시작됐는데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선 한군데 정착해야했고 주거지가 필요했지요. 이때 음식 담을 토기가 만들어졌고 생선뼈로 굽어놓은 듯한 빗살무늬 토기가 생겨나게 된 거죠.” 뗏줄으로 만든 움집 안을 들여다보며 원시인의 생활모습을 그려보았다.

고인돌 광장엔 눈으로 식별하기 힘든 진짜와 가짜가 섞여있다. 선사시대 유물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모조물들이 세워진 탓이다. 고인돌 외엔 모두가 플라스틱으로 재연해 놓은 상징물이다. 특히 도로변 쪽엔 진짜 보다 더 웅장하고 크게 만들어 놓은 고인돌 모형이 있는데 이것은 고인돌 축제 때 개선문으로 사용된다. 일부 관광객들은 안쪽에 있는 진짜 고인돌을 보지도 못하고 플라스틱 가짜 돌 앞에서 사진만 찍고 간다고.

아이들은 더위와 피곤함에 탐방 내내 표정이 돌상처럼 굳어져 있더니 마지막 사진 찍기에서 모두들 시원하게 웃는다. 별판 어디에선가 바람 한줄기가 시원하게 불어왔다. 우리가 듣지 못한 소리를 그들은 들은 것일까. 원시인들과 교감을 한 것일까. 그들의 미소에 시원한 바람개비가 돈다.

글 \_ 조은숙 (부평사람들 기자 · eyagi9090@yahoo.co.kr) / 사진 \_ 김성환 (자유사진가 · koin1@incheon.go.kr)

## 서구 대곡동 일대 110여기 고인돌 발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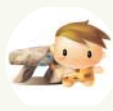
서구 대곡동 일대에서 대규모의 지석묘(고인돌)군이 발견됐다. 현재까지 중부 지역에서 발견된 지석묘군 중에 규모가 가장 큰 것이다. 서구청의 의뢰로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문헌조사와 현장조사를 벌인 인하대박물관은 서구 대곡동 산 123의 1 가현산 북측사면 일대에서 110여기의 지석묘를 발견했다.

대곡동 지석묘군은 현재 인천시 기념물 33호로 지정돼 있으며, 이 중 7기가 문화재로 보호받고 있다. 지금까지 이 지역에 상당수의 지석묘가 있을 것으로 추정돼 왔으나, 체계적인 현장조사가 이뤄지긴 이번이 처음이다. 주변에서 지석묘에 쓰인 돌을 캐낸 흔적(채석흔)이나 판돌, 성혈 등을 함께 찾아내 현재 확인된 것보다 더 많은 수의 지석묘가 이 일대에 분포해 있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인하대박물관은 강화도의 경우 섬 전체에서 지석묘가 발견된 것과 달리, 대곡동 지석묘군은 좁은 지역에 많은 수의 지석묘가 발견된 것이 특징이라고 밝혔다. 가현산 주변은 낮은 구릉지와 한강하류에 펼쳐진 넓은 퇴적평원으로 청동기 시대 사람들이 살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 당시 대규모의 부족집단이 생활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 유비쿼터스 시대로 놀러 온 원시인

9월 30일(금) ~ 10월 3일(월) 4일간

강화군 하점면 부근리 강화고인돌 광장, 마니산, 강화읍

## 울퉁불퉁 근육 돌

청동기시대, 철기시대를 거쳐 반도체시대 그리고 ‘유비쿼터스’ 시대까지 3천년 풍상을 거뜬히 이겨낸 거대한 돌덩이 하나가 별판에 우뚝 서있다. 어느 부족의 용맹스러운 족장의 무덤이었나. 곳곳이 서있는 버팀돌에는 울퉁불퉁 근육이 배어 나오고 뿔개돌에는 세월과 싸우느라 안간힘을 쓴 흔적이 덕지덕지 묻어있다.



##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또 그의 할아버지...

타임머신 타고 되돌아간 수천 년 전의 어느날. 사람이 곧 자연이자 우주인 태초의 사람을 만난다. 그의 이름은 원시인. 나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또 그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었을지도 모를 그 사람에게 天·地·海 창조 비밀을 듣는다.

## 원시인의 DNA ‘순수’

밤이 되자 한바탕 축제를 벌이는 원시인들과 어울려 나도 함께 춤을 추고 소리를 지른다. 욕심도, 싸움도 없이 마냥 행복하게 살았던 옛사람의 순수함이 어느새 물든다. 2005년 가을 강화 별판에도 그들이 지르는 천년의 소리가 울려 퍼진다.



날 짜	9월 30일	10월 1일		10월 2일		10월 3일	
시 간	강화읍	유회의 땅 (광장주무대)	배움의 땅 (고인돌광장)	유회의 땅 (광장주무대)	배움의 땅 (고인돌광장)	유회의 땅 (광장주무대)	배움의 땅 (고인돌광장)
09:00~10:00							
10:00~11:00		개막식 '시대공감'					
11:00~12:00			고인돌 아카데미	전통다도시연		고인돌 아카데미	고인돌 아카데미
12:00~13:00		개막축하공연		외국인 축하공연		북한문화공연	
13:00~14:00					소원성취 굿한마당	완초공예 경진대회	
14:00~15:00	성돌이행사				고인돌 축조재현	고인돌 축조재현	
15:00~16:00		외국인축하공연					
16:00~17:00	강화문화 퍼레이드	고인돌 노래타래 (예선)		영페스티벌	강화순무 요리대회	고인돌 장학퀴즈	
17:00~18:00							
18:00~19:00				외국인 축하공연			
19:00~20:00		라디오 공개방송		아이러브강화		고인돌 노래타래(본선)	
20:00~21:00							
21:00~22:00		불꽃놀이				폐막식 '강화의 미래'	
부대 상설행사	농특산물 큰잔치, 우리동네 먹거리잔치, 강화영상회 사진전, 강돌이 캐릭터그리기, 야생화 전시전, 고인돌 탐방체험, 강화군 지역상품코너 강화문화체험전 (전통다도시연, 왕골공예 체험전, 가훈 써주기, 고려청자 만들기) 강화군민 예능대전 (학생사생대회, 전통다도 예절 경연대회)						
장외 행사	마니산 개천대제, 강화문화 투어행사, 성돌이 행사						

문의 \_ www.ghgoindol.com

글 \_ 유동현 (편집위원 · batubatu@incheon.go.kr) / 사진 \_ 김성환 (자유사진가 · koin1@incheon.go.kr)

## 미스터리... 그 해답을 축제에서 푼다

포크레인과, 기중기도 없다. 물론 도르래도 없다. 그렇다면 50톤이 넘는 거대한 뿔개돌을 원시인들은 어떻게 옮겼을까? 미스터리다. 추정이지만 그 답은 이렇다.

우선 잘 쪼개지는 바위를 골라 징 같은 도구로 깊은 흠을 판다. 이어 나무말뚝을 그 틈에 박고 물을 뿌려놓으면 한 동안 나무가 물에 불어 팽창하면서 바위가 썩 갈라진다.

다음은 떼어낸 돌을 놓고 수백 명이 달려들어 밀고 당긴다. 땅이 썩 얼었을 때 미끄럼을 이용해 좀더 수월하게 밀수도 있었다. 돌이 밀릴 때 통나무도 같이 밀리면서 바퀴 역할을 한다. 이제 운반 한 돌을 궂돌 위에 올려놓는 일이 남아있다. 먼저 궂돌을 땅에 묻어 세운다. 세워진 궂돌을 흙으로 덮고 양쪽을 작은 언덕처럼 약간 경사지게 만든다. 그 경사진 흙더미 위로 뿔개돌을 밀어 올려놓는다. 이때에는 밧줄을 총동원했을 것이다. 맨 마지막으로 흙을 퍼내면 고인돌은 제자리를 잡아 탁자 모양이 된다.

강화고인돌 축제 때는 원시인 복장의 행사요원들이 이 과정을 재연해서 보여준다.







# 세계음악 한자리에 우리음악 세계속에

9월 8일(목) ~11일(일) / 문학경기장 전시컨벤션센터 및 야외 특설무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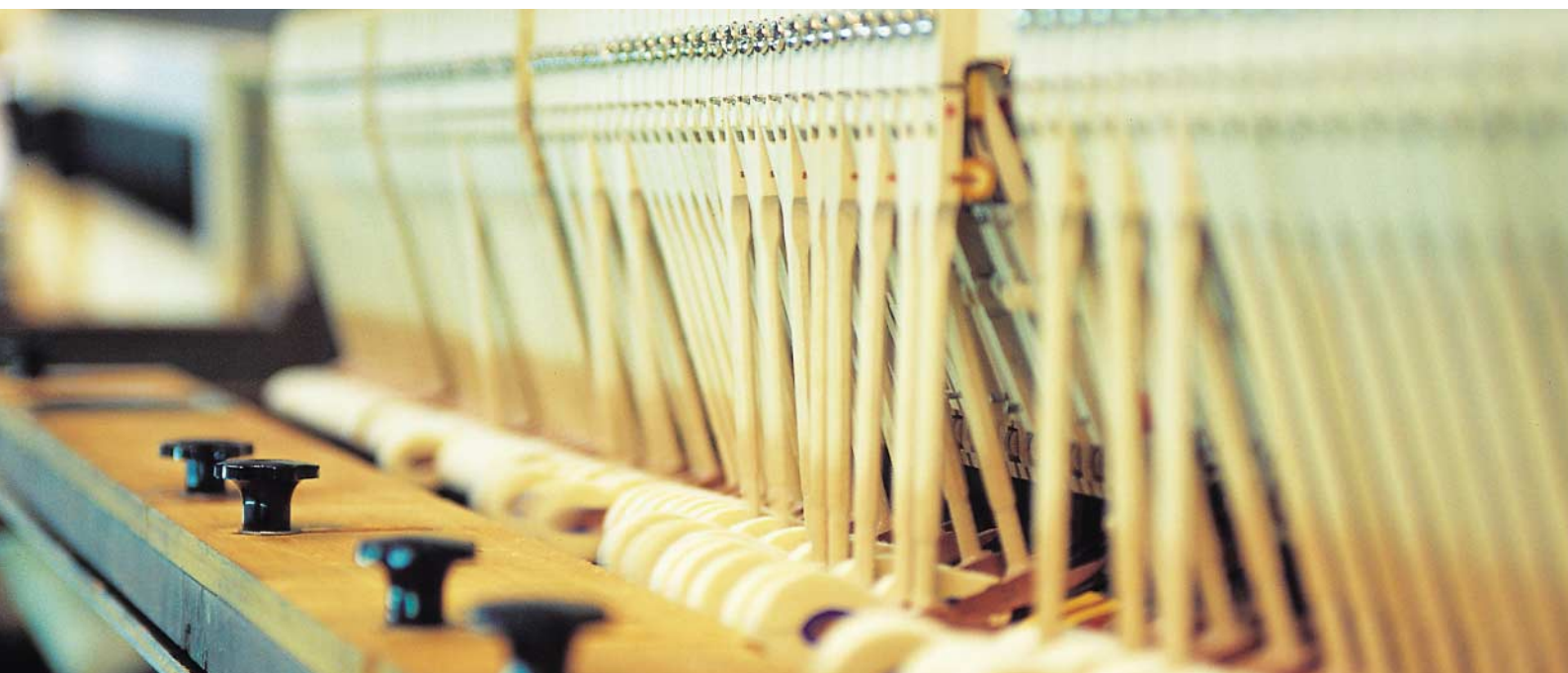


악기 생산의 본고장 인천의 명성을 드높이고 악기업체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2005 인천국제악기전시회가 지난 2003년에 이어 두 번째로 문학경기장 일원에서 성대하게 열린다. 지난 2003년에 열린 제1회 인천국제악기전시회에는 57개 업체가 참여해 125개의 부스에 악기, 오디오, 디지털음향기기, 음반류 등을 전시해 2만여명의 관람객이 다녀가고 3억9천만원에 이르는 현장 상담이 오가는 등의 성과를 거둬 인천의 대표적인 전시회로 자리매김 한 바 있다.

## 전시품목

올해 악기 전시회는 국내 80여개사, 해외 25여개사 등 모두 105여개사의 참여로 140여개 부스가 꾸며져 성대하게 열릴 계획이다. 이번 전시회는 악기는 물론 악기관련 소품류를 비롯해 디지털기기, 음향, 음반, 무대조명산업 등을 망라하는 전문 음악전시회로 열린다.

악기류로는 현악기, 목관악기, 금관악기, 타악기, 건반악기, 국악기, 교재용 악기 등이 전시되고 악기소품류로는 스트링, 조율기, 박자기, 스탠드, 보면대, 이펙트, 활, 케이스, 스틱, 볼륨페달, 픽업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음향관련기기류로 스피커, 앰프, 믹서, 이퀄라이저, 엔코더·디코더, 헤드폰 등이 전시된다. 요즘 신세대라면 누구나 하나쯤은 휴대하고 다닐 디지털 멀티미디어도 전시된다. MP3, CDP, PC용 음향기기, 가라오케기기, 음악 소프트웨어 등이다.



## 주요부대행사

악기전시회라고 해서 악기만 구경하고 만다면 좀 섭섭한 일. 악기와 관련된, 음악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된다.



## 음악경연대회 및 유명밴드 초청공연

9월 11(일) 12:00~16:00 / 야외 특설무대

전시회 기간 중 야외특설무대에서 전시회에 참가한 업체 초청 유명밴드 공연이 열린다. 아울러 고교 및 대학 음악동호인(그룹사운드)을 위한 경연대회를 열고 참가팀에 대한 시상식도 마련한다.

## 수제 명품 현악기 전시관 운영 및 시연회

9월 8일(목)~11(일) / 특별전시장 내

바이올린 제작가 협회원사의 참여로 국내의 대가들이 직접 제작한 명품 수제 현악기와 고전 현악기 복제품을 전시하고 시연회도 연다.

## 세계민속악기전시관

9월 8일(목)~11(일) / 특별전시장 내

국·내외 민속악기를 전시하고 악기변천 발달사, 고음향 기기, 음악서적 등도 함께 둘러볼 수 있다. 아울러 파주 헤이리 민속박물관 소장품도 이곳에 선을 보인다.

## 한국 전통국악기 전시관 운영 및 시연회

9월 8일(목)~11(일) / 특별전시장 내

한국 전통 국악기를 전시하고 이를 직접 연주하는 시연회가 열린다. 일반 관람객들이 국악기를 직접 다뤄보는 체험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문의 \_ 인천국제악기전시회 사무국 (02-6000-1518, [www.musickorea21.com](http://www.musickorea21.com))

글 \_ 정경애 (편집위원 · [happyjka@incheon.go.kr](mailto:happyjka@incheon.go.kr)) / 사진 \_ 김성환 (자유사진가 · [koin1@incheon.go.kr](mailto:koin1@incheon.go.kr))

## 악기생산의 메카, 인천

아이가 피아노를 배우는 집이라면 피아노를 갖고 있는 경우가 꽤 많다. 어떤 상표가 붙어 있는지. 그 피아노를 자세히 들여다보자. 대부분 'SAMICK' 이나 'YOUNGCHANG' 이라는 이름표가 붙어 있을게다. 그 피아노들은 바로 'Made in Incheon' 으로 인천에 태출을 묻고 있는 인천산(産)들이다.

삼익악기는 1973년 6월 부평공장을 설립하고 인천에서 피아노를 생산한 이래 이미 89년에 1억불 수출을 달성했다. 내수 시장 보다는 해외 시장에서 더 각광받는 삼익피아노는 지난 2001년에는 산업자원부에서 선정한 세계일류상품에 포함되기도 했다.

한편 영창악기는 1979년 11월 서구 가좌동에 세계 최대규모의 생산능력을 갖춘 초현대식 공장을 준공해 가동함으로써 인천이 피아노 생산기지로 자리잡는데 큰 몫을 담당했다. 세계 80여개 국으로 수출해 최고의 기술과 품질로 세계 정상급의 피아노메이커라는 찬사를 받고 있으며 2000년 이래 대한민국 고객만족도 1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모든 피아노가 바로 우리 인천에서 태어나고 있으니 인천이 악기 생산의 메카로 자리매김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라 하겠다.





# 백제왕... 그분이 오셨어요

9월 9일(금) ~ 11일(일) / 연수구 옥련동 능허대공원 일대



연수구 옥련동 능허대공원 일대에서 9월 9일~11일, 전야제를 포함해 3일간 우리의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놀이도 즐길 수 있는 축제한마당이 벌어진다. '2005년 능허대 축제'는 올해로 두 번째를 맞는 신생 축제이지만 알짜배기 행사들만 모였다.

하루 전인 9월 9일에는 전야제행사가 열려 축제의 흥을 미리 맛볼 수 있다. 전야제 공연은 연수구 금요일예술큐대를 통해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능허대공원 특설무대에서 진행된다. 이번행사에는 유니, 드렁큰 타이거, 심수봉, 장윤정 등이 출연해 실내공연에서 느낄 수 없는 열정적이고 시원한 무대를 만날 수 있다.

9월 10일 행사는 전야제의 흥분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백제의 숨결을 느껴볼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기다린다. 능허대축제의 메인 행사라고 할 수 있는 사신행렬은 중국사신단을 재현한 것으로 취타대를 선두로 행렬단과 풍물패 등으로 구성돼 볼거리를 제공한다. 중국의 전통민속공연도 펼쳐지고 연수구립예술단이 펼치는 공연에는 가수 유열, 신호범 등이 초청돼 축제개막을 축하한다. 그 열기는 늦은 밤까지 식지 않고 불꽃놀이로 이어진다.



날 짜	시 간	행 사	
9월 9일(금) 전야제행사	18:30~19:00	- 백제왕선발대회	
	19:30~21:30	- 금요일예술큐대 『CBS라디오특집공개방송』 유니 · 드렁큰타이거 · 심수봉 · 장윤정 등 출연	
9월 10일(토)	17:00~18:00	- 중국전통공연	어울마당
	16:30~18:00	- 사신행렬단	연수구 시내
	19:00~21:00	- 개막식행사 (연수구립예술단/유열/신호범 등)	어울마당
	13:00~18:00	- 씨름왕선발대회	어울마당
	11:00~16:00	- 능허대 사생대회	나눔마당(옥련센터)
	21:00~21:10	- 불꽃놀이	어울마당
9월 11일(일)	09:30~12:00	- 마라톤&걷기대회	어울마당 · 능허대 일대
	11:00~18:00	- SBS생방송 TV 아름다운 가게	나눔마당(옥련센터)
	13:00~16:00	- 우리센터경연대회	어울마당
	14:00~18:00	- 어린이경제체험마당	나눔마당(옥련센터)
	17:00~19:00	- 연수구국악협회공연 - 풍물패 '두드림' - 퓨전오케스트라	어울마당
	13:00~18:00	- 동대항여자단체전씨름대회	어울마당
	19:00~20:00	- 스트롱아프리카(아프리카 전통)공연	어울마당
	20:30~21:30	- 폐막공연 '두드림' 등	어울마당
			어울마당
			어울마당

축제 마지막날인 9월 11일에는 풍물패 '두드림'과 퓨전오케스트라, '두드림'의 타악연주 등이 공연된다. 또 단축마라톤과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가족 건강걷기대회도 열린다.

이번 능허대축제에서는 무대행사, 체험행사, 참여행사, 먹거리장터 등 민속놀이를 종합선물세트로 즐길 수 있다. 한가위를 앞두고 아이들에게 추석선물로 이만한 선물이 또 있을까?

체험 및 참여행사는 행사기간 이틀간 열린다. 아이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전통행사로는 떡메치기, 민속줄넘기, 투호 등의 민속놀이와 '백제왕과 독대하다', 씨름왕선발대회 등이 열린다. 일명 '민속기네스'가 열려 전통놀이도 즐기고 상품도 받을 수 있다. 그 외에도 주민자치마당과 능허대사생대회, 동별먹거리 마당이 열린다. 이번축제에는 어르신만이 참가할 수 있는 독특한 대회가 있다. 바로 '백제왕 선발대회'이다. 65세이상 연수구에 거주하시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백제왕의 자태와 위엄을 가진 사람을 선발한다.

문의 \_ 축제추진위원회 810-7761~3, 연수구 문화체육과 810~7761 (www.능허대.com)

글 \_ 김미희 (편집위원 · meehee75@incheon.go.kr)

## 능 허 대 이 야 기

### 백제의 국제항, 능허대

능허대는 서울을 도읍으로 했던 한성 백제때 중국동진과 교류를 시작한 근초고왕 27년(372)부터 웅진으로 도읍을 옮긴 개로왕 21년(475)까지 100여년간 사신들이 중국으로 왕래할 때 출발했던 나루터가 있던 곳이다. 말하자면 백제의 국제항으로 이해하면 되겠다. 우리시는 현재, 능허대를 기념물 제8호로 지정했다.

능허대라는 이름은 중국 북송때 시인인 소동파의 적벽부에서 따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만경을 건넌다는 능만경(凌萬頃)의 '능'자와 바람을 타고 하늘에 오른다는 빙허어풍(憑虛御風)의 '허'자를 따서 '만경창파를 타고 하늘을 나르듯 건넌다'는 뜻으로 지어졌다고 한다. 지금은 옛 나루터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지만 백제의 국제교류항으로 지금의 인천국제공항이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 사이코드라마 나는 타스마니아로 간다



극단 십년후의 '나는 타스마니아로 간다'(작 윤대성 / 연출 강상규)는 가정 폭력으로 인한 비극을 통하여 양성 평등이라는 화두를 세상에 던지는 연극이다. 어린 시절부터 혹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정신적·물리적 폭력으로 인해 불행한 현재를 살고 있는 현대인의 아픔을 다룬 사이코 드라마이다.

현실에서 벗어나 무대 위로 도피하려는 윤애주와 고문의 후유증으로 강박증에 시달리며 타스마니아를 꿈꾸는 시인 김하림은 유능한 신경정신과 전문의인 최박사의 환자이다. 최박사가 제시한 치료 방법으로 김하림이 쓰는 뮤지컬에 윤애주가 출연하게 되지만, 윤애주의 남편인 장근대가 나타나면서 무대는 엉망이 되고, 세 사람이 신경정신과에 오게 된 과거 폭력의 상처가 드러난다.

**일시** \_ 9월 7일(수) ~ 10일(토) 오후 3시·7시 30분

**장소** \_ 인천광역시여성문화회관

**티켓** \_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문의** \_ 극단 십년 후 (514-2050 / www.samsin.info)

## 어쿠스틱 콘서트 육현(六弦)의 시인들

기계음을 배제한 부드러운 선율로 사랑과 추억을 노래하는 육현(六弦)의 시인(詩人)들. 그들의 감성적인 어쿠스틱 콘서트가 풀벌레 소리 정겹게 들리는 초가을 문턱에 부평벌에서 울려 퍼진다.



9월 9일에는 나무자전거(강인봉, 김형섭)의 달콤하고 아름다운 포크음악을 들을 수 있고 9월 23일에는 듀엣 '해바라기' '따로 또같이'로 활동하고 2001년 포크그룹 '자전거 탄 풍경'을 결성한 풍경(송봉주)의 멋진 멜로디를 들을 수 있다.

**일시** \_ 나무자전거 9월 9일(금) 오후 7시 30분

풍경 9월 23일(금) 오후 7시 30분

**장소** \_ 부평문화사랑방(갈산2동)

**티켓** \_ 성인 10,000원 / 청소년 5,000원  
(문화원 회원 및 문화사랑방 회원 20%할인)

**문의** \_ 505-5995

### 인천&아츠 시민음악회II

##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 초청공연

살아있는 가장 위대한 기악 연주자, 한국이 낳은 이 시대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라는 찬사를 받고 있는 정경화는 철저함과 완벽함으로 클래식 음악계를 뒤흔들며 세계무대를 누비고 있다. 『인천&아츠』 시민음악회 시리즈, 그 두 번째 무대를 그녀가 장식한다. 이번 연주회는 세월 속에서 천부적인 재능이 농익은 정경화의 원숙함이 창단 40주년을 맞은 서울바로크합주단의 연륜과 더해져서 더욱 풍성하고 화려한 무대가 될 것이다.

### 〈프로그램〉

F.Mendelssohn	Symphony for Strings in b minor No.10 서울바로크합주단
J.S.Bach	Violin Concerto No.1 in a minor BWV1041 (지휘 & 바이올린 : 정경화)
J.S.Bach	Violin Concerto No.2 in E Major BWV1042 (지휘 & 바이올린 : 정경화)
H.Wolff	Serenade 서울바로크합주단
J.S.Bach	Concerto for Violin in d minor BWV1052 (지휘 & 바이올린 : 정경화)

**일시** \_ 9월 4일(일) 오후 7시

**장소** \_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_ R석 5만원 / S석 3만원 / A석 2만원 (회관유료회원 및 학생할인)  
(예매 : 엔티켓 1588-2341 / 티켓링크 1588-7890 / 인터파크 1544-1555)

**문의** \_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420-2020~2)



### 제56회 출마당 홍마당

## 이원국의 이야기가 있는 발레

한국의 대표 발레리노 이원국이 이끄는 '이원국 발레단' 초청무대이다. 해설과 함께하는 백조의 호수, 탈리스만, 카르멘 등 유명한 발레 작품의 하이라이트 장면 등 발레 갈라 공연을 통해 발레의 세계로 안내한다.

**일시** \_ 9월 28일(수) 오후 7시 30분

**장소** \_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티켓** \_ R석 5,000원 / S석 3,000원

**문의** \_ 인천시립무용단 (420-2788), 엔티켓 1588-2341

## 제2회 인천광역시서각대전



대상 영광섭작

미추홀상  
안정자 작

서각은 오래전부터 인간의 자기 표현 욕구의 하나로, 바위나 돌 등에 새긴 금석문, 고려시대의 팔만대장경, 그리고 고궁이나 사찰의 현판 등에 그 흔적이 남아 있다. 현대에 이르러서는 문자를 조형화하여 미적 감동을 자아내는 종합예술로 발전했다. 한국서각협회인천지회(지회장 이항녕)는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고 창작정신을 고양하기 위해 서각부문(음각, 양각, 음양

각, 환조서각, 혼합각, 임각, 생활서각)과 서예부문(한글, 한문, 문인화, 현대서예, 전각)의 공모전 및 전시회를 개최한다. 미래의 서각계를 이끌어 나갈 참신하고 역량있는 신인작가의 발굴과 방과 후 활동 등을 통해 익힌 순수하고 창의적인 학생들의 서각작품 3백여점이 전시될 예정이다.

**전시기간** \_ 9월 16일(금) ~ 22(목)

**전시장소** \_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전시실

**문의** \_ 524-6536, 011-9121-7774

## 제1회 학산젊은연극제

'청소년의 성장과 행복을 꿈꾸는' 제1회 학산젊은연극제가 9월 1일(목)부터 6일(화)까지 6일 동안 남구 학산소극장을 비롯해 시연센소극장, 인하대 등에서 열린다. 이 연극제에 올려지는 연극에는 인천의 역사와 삶이 담겨져 있다. 올해 연극제는 인천이 낳은 뛰어난 극작가 함세덕의 작품과 함께 한다. 인천 팔미도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가족사와 구세대에 의해 좌절되는 젊은 남녀의 사랑을 그린 '해연'을 시작으로, '무의도 기행', '닭과 아이들' 등의 희곡작품이 공연된다. 행사 기간 중 '함세덕의 작품세계와 이데올로기'를 주제로 한 학술심포지엄과 퓨전 국악마당도 함께 열릴 예정이다.

### 〈날짜별 공연일정〉

9월 1일 오후 4:30, 7:30 / '해연'(함세덕 작) / 학산소극장 (4일까지)

9월 2일 오후 1:00 / 함세덕문학학술심포지엄 / 인하대 정석학술정보관 국제회의실  
오후 10:00 / 거리난장 - 퓨전국악밴드 '449프로젝트' 공연 / 인하대후문 거리

9월 3일 오후 4:30 / '닭과 아이들'(함세덕 작) / 시연센소극장(4일까지)

9월 5일 오후 4:30, 7:30 / 초청작품 '춘향전을 준비하는 녀자들'(김재석 작) / 학산소극장  
오후 7:30 / '무의도기행'(함세덕 작) / 인하대 5남 소강당(6일까지)

9월 6일 오후 4:30, 7:30 / 초청작품 '휴먼코메디'(임도완 연출) / 학산소극장

**문의** \_ 학산젊은연극제 준비위원회 (866-3927 / www.hsplay.net)

### 인천시립합창단 제96회 정기연주회

## Brahms, John Rutter와 함께하는 사랑의 왈츠



**일시** \_ 9월 13일(화) 오후 7시 30분

**장소** \_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_ 일반 10,000원 / 청소년 5,000원

**문의** \_ 인천시립합창단 (438-7775), 엔티켓 1588-2341

### 인천시립교향악단 제263회 정기연주회

## 모차르트 클라리넷 협주곡 등 『가을음악회』



**일시** \_ 9월 29일(목) 오후 7시 30분

**장소** \_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_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

**문의** \_ 인천시립교향악단 (420-2781), 엔티켓 1588-2341





## 2005 월미국제음악제

기간 \_ 9월 7일(수) ~ 10일(토) (4일간 5회 공연)

장소 \_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 · 소공연장

티켓 \_ 무료 (시 홈페이지 인터넷 예약접수)

문의 \_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440-4020~5)



## #1 한국정상의 관악양상을 초청 재즈와 팝페스티벌

연수구립관악단 · 서울한타지아콘서트밴드 ·

서귀포시립관악단 초청공연

9월 7일(수) 오후 7시30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Review

## 정명훈과 함께 한 클래식 향연

마에스트로 정명훈이 8월 12일 · 13일 이틀간 인천시민들에게 열정적인 클래식 향연을 베풀었다. ‘인천&아츠’ 아시아필하모닉오케스트라 아카데미(APO)에 참가한 젊은 음악인들과 함께 한 무대에서 정명훈은 베토벤의 ‘전원교향곡’과 차이코프스키의 ‘교향곡 4번’을 연주했다. 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을 꽉 메운 관객들은 세계적인 지휘자 정명훈과 APO의 열정적인 무대에 뜨거운 갈채를 보냈다.

한편 이에 앞서 8월 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난 정명훈 씨는 “아시아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본부를 인천에 설립한다”고 밝혔다. 그는 “인천지역은 음악학교, 오케스트라 프로젝트를 추진하기에 적당하다”며 “2008년까지 3년간 오케스트라, 성악가, 지휘자를 양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2

### 전국학생음악 경연대회

성악(독창), 기악(피아노), 현악(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등), 관악(트럼본, 바순, 플룻 등), 작곡(창작곡)등 경연

9월 7일(수)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 · 소공연장

## #3

### 한국이 낳은 국제정상급 연주자 초청 클래식의 향연

인천시립교향악단, 트럼펫 · 안희찬, 하모니아 3중주단 초청공연

9월 8일(목) 오후 7시30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4

### 한 · 중 · 일 정상의 성악가와 함께하는 솔리스트 축제

중국 : 소프라노 손홍연, 테너 오정인

일본 : 소프라노 도리끼야요이, 테너 시미즈

한국 : 소프라노 하애란, 테너 전인근

9월 8일(목) 오후 7시30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5

### 세계 정상의 러시아실내악단 초청 유럽음악제

고전 러시아로망스 / 러시아작곡가들의 로망스들 /

러시아 전통악기를 위한 소곡들 / 러시아민요들

9월 9일(금) 오후 7시30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6

### 유니온팝소케스트라 열린 사랑의 팝콘서트

뮤지컬 가수 : 홍지민, 안광영

3테너 : 전인근, 차문수, 강진모

합 창 : 코람데오남성합창단,

남구 · 남동구 · 부평구 여성합창단

9월 10일(토) 오후 7시30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일	화	수	목	금	토	일
5	6 금나래와 함께하는 CJ가족음악회 (유치인인물화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30분 / 초대 011-9650-9069 02-2232-8744	7 2005년 월미국제음악제 재즈와 팝 페스티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30분 / 초대 오후 7시30분 / 440-4024	8 사이코드라마 (나는 타스마니아로 간다) 인천광역시(여성문화회관) 오후 3시 / 무료 1만, 5천 / 514-2050	9 사이코드라마 (나는 타스마니아로 간다) 인천광역시(여성문화회관) 오후 3시 / 무료 1만, 5천 / 514-2050	10 사이코드라마 (나는 타스마니아로 간다) 인천광역시(여성문화회관) 오후 3시 / 무료 1만, 5천 / 514-2050	11 인천청소년교향악단 (가곡과 아리아의 밤)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30분 1만, 7천, 5천 438-6040
	12 시립합창단 제96회 정기연주회 (사랑의 열쇠)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30분 1만, 7천, 5천 420-2784	13 웅진교민기념사업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 무료 010-7332-5560	14 웅진교민기념사업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 무료 010-7332-5560	15 제16회 사학복지의 날 기념 시립복지인기포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 무료 883-4773	16 경인지역교회지회(모임) (2005년 은혜로운 성가합창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 무료 885-3302	17 토요상설공연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5시 420-2788
19	20 클로리아시도 정기연주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30분 초대 019-278-6225	21 바이브무용단 (현대무용 -비 그 파스텔)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8시 2만, 1만 528-6069	22 제16회 이진음악회 시립무용단 (가을밤이 제263회 정기연주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30분 1만, 7천, 5천 420-2781	23 생애매미에 관하여 시형 1주년 맞이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30분 / 5천 / 527-0090	24 홍부와 늑대(플러스기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2시 / 4시 1만, 8천, 7천 011-9749-4212 02-972-4212	25 영도탈 (제18회 정기연주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8시 / 7천, 5천 519-8874
	26 제16회 이진음악회 lions ensemble 초청연주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30분 무료 010-9693-0834 760-0834	27 인천남성합창단 제38회 정기연주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 초대 011-717-0302 / 875-9939	28 인천남성합창단 제38회 정기연주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 초대 011-717-0302 / 875-9939	29 시립교향악단 (가을밤이 제263회 정기연주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30분 1만, 7천, 5천 420-2781	30 2005년도 아이스리빙 오케스트라정기공연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30분 / 초대 812-6691	31 금요예술무대 (갈미로온 섹스폰이야기)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7시30분 무료 / 420-2717

※ 공연 및 전시는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람전 반드시 전화로 확인하세요.



# 경계, 그 너머와 사이

9월 8일(목) ~ 11일(일)

부평공원,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전시실, 부평문화의 거리

## 노동 미술굿

노동미술 프로젝트 전시, 노동미술굿 오프닝행사, 노동미술 좌담회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노동미술의 주체를 재생산한다.

일시 \_ 9월 9일(금) ~ 15일(목)

장소 \_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참여작가 \_ 성호숙, 김정렬, 김하연, 정윤희, 류우중, 이윤엽, 박응주 등

## 인천노동자 문화한마당

연극 공연 <우리 끝내 승리하리라>(극단 현장)와 연극 워크숍 <마음으로 그리는 연극> 발표, 지역 노동자 문화패와 문화 소모임 공연 및 발표회, 각 연맹 및 산별노조 주요 과제 드러내기 등을 통해 문화기획의 주체를 형성하고 지역 노동문화운동으로 연결되는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한마당이다.

일시 \_ 9월 9일(금) 오후 7시 ~ 9시

장소 \_ 부평공원

출연진 \_ 인천지역 노동자 문화패 외



## 거리문화공연

‘거리’라는 열린 공간에서 시민들과 소통하고 다양한 지역의 구체적 현장을 직접 찾아감으로써 노동문화제를 홍보하고 노동문화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며 이후 공동체 문화의 디딤돌로 삼기 위한 공연이다.

일시 \_ 9월 10일(토) 오후 1시, 11일(일) 오전 11시

장소 \_ 부평문화의 거리

## 노동가요 콘서트

시낭송, 영상, 몸짓공연, 노래, 밴드공연, 노동가요 등을 통해 지역의 노동대중이 다양한 형식의 노동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일시 \_ 9월 10일(토) 오후 7시

장소 \_ 부평공원 야외무대

출연(예정) \_ 연영석, 바리케이트, Stop crack down, 이반밴드, 몸짓선언 등



## 공간점거 퍼포먼스 ‘뭉’

투명벽화, 비닐바닥그림, 손바닥 깃발, 나의 몸짓 등을 통해 능동적으로 다양한 분야를 체험하고 배우며 자신의 감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해내는 기회를 제공한다. 가족단위 참여로 놀이와 체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문화와 예술에 대한 애정을 기를 수 있는 공간이다.

일시 \_ 9월 10일(토) 오후 3시~6시, 11일(일) 오후 1시~5시

장소 \_ 부평공원

	9월 8일(목)	9월 9일(금)	9월 10일(토)	9월 11일(일)
11:00				단체부스(부평공원) 거리공연(부평문화의거리)
13:00			단체부스(부평공원) 거리공연(부평문화의거리)	뭉(부평공원)
15:00			뭉(부평공원)	동화구연(원형극장)
16:00			동화구연(원형극장)	풍물대동굿한마당(부평공원)
18:00	연극워크숍(원형극장)	연극워크숍(원형극장) 인천노동자문화한마당(부평공원)		
19:00	아름다운연대(연극-부평공원)		노동가요콘서트(부평공원)	
상설			노동미술굿(종합문화예술회관전시실)	

문의 \_ 인천노동문화제 조직위원회 (874-1479, ilcf.co.kr)

# 흔들림 없는 ‘동북아 물류중심’



글 \_ 안영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국장)

인천경제자유구역 핵심사업 중의 하나는 물류(logistics)다.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넘기 위해서는 제조업에서 서비스 산업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그 핵심축이 물류다. 또 우리나라는 물류비용이 턱없이 높아서 전반적인 생산성의 저하가 초래되고 있는바 물류 효율화가 절실하다.

인천은 입지적 이점 및 공항·항만을 동시에 가진 강점 때문에 천혜의 물류 중심지라 할 수 있다. 남은 과제는 항만시설을 확충하고 물류기업을 유치하는 일인데, 그 과업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필자는 우리 목표가 꼭 달성될 것임을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

우선 인천은 한국의 관문이다. 인천항은 금액기준으로 부산을 제치고 최대의 수출항이 되었고, 한국경제가 첨단산업 위주로 개편될수록 위상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즉 수출입 화물의 50%가 수도권에서 생산되는데, 그것을 부산이나 광양으로 수송하면 컨테이너당 400달러 정도의 육로수송비가 먹힌다. 현재는 약 85%의 수도권 화물이 남쪽으로 수송되어 낭비가 심하다. 이것이 시정되면 연간 1백만 TEU에 불과한 인천항의 컨테이너 화물이 2011년까지 5백만 TEU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은 중국과의 교역기지이자 동북아의 주요 물류기지도 될 수 있다. 우리의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이 2011년이면 35%에 달하고 대부분이 인천을 통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에 청도, 대련 등의 항만이 확충 중이어서 인천항을 통한 환적수요에는 한계가 있겠지만, 인천공항은 북중국 항공기지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 부분적으로 해공(Sea & Air) 물류의 증가도 기대해 봄직하다.

마지막으로 인천은 세계를 향한 북한의 관문이다. 북한의 산업 활동이 개성을 정점으로 활성화되고 있는데 인천은 개성과 불과 70km 거리에 있으며 강화군과 개풍군간 1.4km도 다리로 연결될 수 있다.

물론 물류기지 건설은 입지 뿐 아니라 뛰어난 시설과 체계(system)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점에서도 인천은 탁월하다. 인천공항은 언급할 필요가 없고, 컨테이너 시설이 확충된다면 항만도 손색이 없다. 인천시의 U-city 사업의 중심에도 물류가 있다. RFID 칩을 활용한 화물분류 체계는 인천공항에서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고 곧 항만으로 확산될 것이다. 화주, 물류업자, 세관, 항만·공항 당국이 서로 연결되어 실시간 정보확인 및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준비되고 있기도 하다.

얼마 전에 FedEx와 UPS가 각각 중국의 광주와 상해에 물류기지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하는 바람에 인천의 입지가 흔들린다는 시각이 있다. 그러나 북중국을 포괄하기에는 인천이 입지 면에서 유리하며 제도와 시스템의 뒷받침도 월등하다. 그러므로 ‘동북아 물류기지’로서의 인천의 위상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이 없을 것이다.



# 굿인천 굿뉴스

## 부평공원묘지, 테마 공원으로 재정비



부평묘지공원이 가족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공원으로 재정비된다. 우리시는 부평공원내 일부묘역을 재정비해 생태하천을 복원

하고 야경관찰공원과 산책로 등을 꾸며 테마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선진국형 묘지공원의 형태를 갖춰 유골을 화장한 후 묘역에 뿌리는 '유택동산'도 조성할 예정이다. 공원 재정비 사업은 50만평 규모의 공원을 3단계로 나눠 2021년까지 만들 예정이다.

문의 \_ 시 가정청소년과 (440-3954)

## 벼룩시장에서 정을 나눴다

중고 물건이나 쓸모없어진 물건을 이웃과 교환할 수 있는 벼룩시장이 생긴다. 우리시는 9월부터 매달 넷째 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관교동 중앙공원(종합문화예술회관 앞)에서 '인천시민 행복한 나눔장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일반시민과 동우회 등을 대상으로 물건을 교환하거나 싸게 살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판매수익금의 10%를 결식아동과 독거노인 등을 위해 지원할 예정이다. 나눔장터는 시민단체가 운영을 맡게 된다.

문의 \_ 시 폐기물 자원과 (440-3573)

## 인천지하철-인천버스 환승요금할인



인천지하철에서 버스로 갈아탈 때만 할인되던 요금이 앞으로는 버스에서 지하철을 갈아탈 때도 할인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인천지하철에서 내려 30분 안에 시내버스로 갈아탈 경우 버스 요금의 50%를 할인받던 것

에 이어 시내버스를 타고 1시간 이내에 인천지하철로 갈아탈 경우 지하철 기본요금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다. 한편 서울지하철 등과의 환승은 현재 수도권 운행기관 및 조합 등과 협의 중에 있으며 올해 안에 양방향 환승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서울과 경기도 등과 동시에 시행할 예정이다.

문의 \_ 시 교통기획과 (440-3876)

## 인천대-전문대 교지조정 합의



인천시립대와 인천시립전문대는 지난 7월 28일 안상수 시장, 박승숙 시의장 그리고 대학 총장과 학장, 대학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

운데 교지조정합의서에 공동 서명했다. 이 합의서에 따라 인천대는 송도 국제도시 15만6천여평에 새 캠퍼스를 마련해 이전하는 동시에 국립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전문대학은 인천대 교지 일부와 인화여중 일부, 주변 사유지 등 6만7천여평에 캠퍼스를 재배치하기로 했다.

문의 \_ 시 정책기획관실 (440-2172)

## 공장이전지 4개 지역 도시개발사업 추진

우리시는 현재 유헴지 상태인 부개동, 용현·학익지역, 검단공업지역, 효성동 등 4개 지역을 도시개발사업 지역으로 새로 추가했다. 부평구는 부개동 120 일대 3만3천평이, 남구는 용현·학익동 587 일대 57만3천평이, 서구는 오류동 410 일원 검단공업지역 45만3천평이 그리고 계양구는 효성동 123 일대 12만1천평이 개발사업에 들어간다. 이들 지역은 모두 공장 이전지로 도시개발을 통해 주거, 상업, 정보통신, 생태, 문화 등의 기능이 보강돼 쾌적한 시가지로 재정비될 예정이다.

문의 \_ 시 개발계획과 (440-3423)

## 시내버스 4개 노선 신설

우리시는 '시내버스 노선개편 시행계획'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일부 지역에 9월부터 4개의 노선을 추가 운행하기로 했다. 노선이 신설되는 지역은 택지개발상업지구와 인천지하철과 국철 등의 연계가 필요한 지역이다. 또 영흥지역과 인천시내 주요지점을 시내버스로 연계하는 노선도 신설된다.

〈신설된 버스운행노선〉

79번 : 서구 백석중~검암2지구~검암1지구~인천지하철 계산역~부평구 삼산지구~경인전철 부개역

760번 : 삼산지구~삼산농산물도매시장~인천지하철 갈산역~청천동~성모병원~부개역~삼산지구

770번 : 서구 경서지구~인천지하철 계산역~계양구 계산지구~효성동

790번 : 남구 용현동~주안동~인천시청~남동구 만수동~소래~선재도~영흥도

문의 \_ 시 대중교통과 (440-3893)

## 인천공항 주변 4개섬 연륙교 건설



우리시는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와 신도, 시도, 모도, 장봉도를 연결하는 대규모 해상도로

건설을 추진 중이다. 영종 및 청라 경제자유구역과 연계한 배후 관광단지를 개발하기 위해 인천역이 종점인 국도 77호선을 웅진군 북도면 장봉도까지 42km 연장해 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한 상태다. 이 구간 국도가 연장될 경우 서구 경서동~영종도~신도~시도~모도~장봉도를 한 노선으로 연결하는 연륙교가 된다. 건교부가 현재 발주한 '일반국도 노선 재정비 용역'이 끝나는 오는 12월쯤 77호선 국도의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문의 \_ 시 도로과 (440-3793)

## 간선급행버스 도입

인천도심지역의 9개 노선에 버스운행에 철도시스템을 적용한 신교통시스템인 BRT(Bus Rapid Transit·간

선급행버스)가 도입될 전망이다. 이 시스템은 2008년에 주요 간선도로에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하고 2009년부터 서구 청라지구~효성동, 인주로, 미추홀길 등 총 9개 간선버스노선이 점차적으로 건설돼 운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존의 경인선과 인천지하철 1호선, 인천국제공항철도, 수인선 등과 연계될 수 있도록 환승센터가 마련된다. 이 시스템이 도입될 경우 하루 평균 5천 600대 이상의 교통량 감소효과가 기대되며 기존의 운행속도보다 시속 9km정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_ 시 교통기획과 (440-3872)

## 친환경 농산물로 학교급식



인천시내 초·중·고교에 친환경 농산물이 공급되고 이를 위한 농업단지가 조성될 전망이다.

우리시는 농산물 개방

확대와 유기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를 맞추기 위해 오는 2010년까지 친환경 농경지 32곳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 농경지는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을 30%이상 줄인 대규모 친환경 농업단지로 이곳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인천시내 각 학교급식에 공급하기로 했다.

문의 \_ 시 농정과 (440-2975)

## 사이버 시민상담통합센터 운영

각종 고민·상담센터를 하나의 사이트로 통합한 상담포털사이트가 운영된다. 우리시는 내년 5월까지 '사이버 시민상담 통합센터' 통합사이트를 개설해 아동학대 예방상담센터, 성문화센터, 여성긴급전화, 마약퇴치 운동본부 등 11개 상담센터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구축할 예정이다. 그동안 이용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웠하던 고민상담과 정보를 포털사이트를 통해 쉽게 얻을 수 있고 자가진단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용자가 상담시간, 장소, 방법, 상담원 등을 직접 선택할 수도 있다. 이로써 사이트 접속 하나로 해당되는 상담센터의 전화상담, 방문상담, 인터넷 상담 등이 쉽게 이뤄질 전망이다.

문의 \_ 시 가정청소년과 (440-3298)



## 외국인 관광객 증가



국내여행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 상반기 우리시를 여행한 외국인 관광객 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3만6천78명의 외국인이 우리시를 방문한데 반해 올해 상반기 동안만 모두 3만8천371명이 방문해 같은 비율로 증가할 경우 2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시는 ‘해외관광객유치 인센티브제’를 벌이는 등 해외관광객들의 필수 방문코스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한편 시는 오는 2009년을 ‘인천 방문의 해’로 정하고 문화관광부에 신청하기로 했다.

문의 \_ 시 관광진흥과 (440-4042)

## 송도해안도로 12차선으로 확장

송도국제도시와 남동구 고잔동을 연결하는 송도 해안도로가 확장된다. 우리시는 현재 6차선인 도로를 12차선으로 넓히고 길이도 5.92km확장할 예정이며 내년 1월에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가 2009년에 완공 예정이다. 서쪽은 현재 공사중인 인천대교와, 동쪽은 2008년 개통 예정인 제3경인고속도로와 각각 연결된다. 해안도로 확장은 인천경제자유구역 활성화는 물론 인천국제공항과 도심간 교통소통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문의 \_ 시 도로과 (440-3793)

## 인천 인구 261만9천947명

우리시는 주민등록표와 외국인등록표에 등재된 내·외국인과 세대를 대상으로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인구통계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우리시의 총인구수는 2004년말 대비 0.35% 증가한 261만9천947명으로 나타났다. 부평구의 인구가 가장 많은 반면 옹진군이 가장 적게 나타났다. 또한 서구의 경우 검단·검암 구획정리 사업으로 인한 아파트 입주 등으로 인구가 가장 많이 늘었으며 논현동 택지개발 및 간석구월주공아파트 재건축 등으로 남동구 인구가 가장 많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 인구가 가장 많은 구 : 부평구 (564,088명)
- 인구가 가장 적은 군 : 옹진군 (15,570명)
- 인구가 가장 많이 증가한 구 : 서구 (13,930명 증가)

증가원인 : 검단·검암구획정리 사업으로 아파트 입주

문의 \_ 시 정보화담당관실 (440-2366)

## 물류전문인력 아카데미 개설

우리시는 오는 10월 7일부터 12월 9일까지 인천대 동북아물류 혁신 클러스터와 공동으로 물류 전문인력 아카데미를 개설하기로 했다. 이번 아카데미 개설을 통해 인천지역의 물류업계 관계자는 물론 관련 공무원, 기업물류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 40여명의 전문 물류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교육과정은 직종별, 직능별 개인의 선택에 따라 온라인 교육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며 실무 현장경험을 위해 물류의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해 강의하는 오프라인 교육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문의 \_ 시 항만공항물류과 (440-3446)

## GM대우 부평공장 10월중 인수 가능

대우인천자동차 부평공장이 빠르면 올해 10월중에 GM대우에 인수될 것으로 보인다. 대우자동차노동조합에 따르면 GM대우 닉 라일리 사장이 지난 7월 26일 열린 2005년 임금협상장에서 임금교섭이 타결되는 대로 부평공장 인수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빠르면 10월 중순에, 늦어도 올해 안에는 인수를 마무리하겠다는 것이다.

닉 라일리 사장은 부평에 대한 신뢰가 높아졌고 좋은 성과를 인정해 더 나은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조기 인수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문의 \_ 시 경제정책과 (440-2793)

## 의 정 소 식

## 차세대 여성지도자의 꿈 펼친다



인천광역시의회(의장·박승숙)는 인천지역의 차세대 여성 지도자를 육성하고, 여성의 정치적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13일까지 17일간 ‘2005년도 지방의회 인턴교육’을 실시했다. 지난해에 처음 실시된 지방의회 인턴교육은 올해 시의회 김성숙 운영위원장과 이성옥 의원, 구의회 주정분, 최화자, 강순양 의원 등 총 5명의 여성의원들과 19명의 참여 여대생들이 후원과 후견인 역할을 하는 멘토링 결연식을 처음 가졌고, 의정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결연을 맺은 여성의원들과의 공동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방향으로 일정이 진행됐다. 시의회 운영위원장 김성숙 의원의 분임조가 된 5명의 학생들은 ‘인천의 이미지 개선방안을 위한 문화콘텐츠 개발’을 주제로 모의 상임위원회를 열고 학생들 스스로가 위원장, 간사, 위원이 되어 질의서를 만들고, 문교사회위원회 소속 김성숙, 안병배 의원과 현안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기도 했다. 지난 7월 12일엔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대학 유치방안’을 주제로 모의의회를 열고 학생들이 시의원이 되어 회의 진행, 제안설명, 토론 등 의원들의 역할을 체험하고 느끼는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각각 3명씩 찬성, 반대토론자로 나서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대학 유치의 필요성, 외국대학 설립으로 인한 인재 및 자본의 잠식 등 찬반의 이유를 지적하며 활발한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이 안건은 기립에 의한 표결로 반대 7표, 찬성 9표를 얻어 가결됐다. 이 인턴사업에 참여했던 한 학생은 “의원들의 하루일과를 지켜보면서 24시간을 얼마나 바쁘게 쪼개면서 활동하는지 새삼 알 수 있었다”며 “의원들의 다양한 면을 피부로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김성숙 의원은 “지방의회 인턴교육이 올해로 두 번째 열렸는데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40여명의 젊은 예비 정치후보자들에게 의원들을 신뢰하고 의회를 가까이 여기게 하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 금강산에서 업무연찬회 개최



인천광역시의회 남북교류촉진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28일부터 30일까지 남북특위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업무연찬회를 금강산에서 가졌다. 이번 업무연찬회는 남북특위 소속 의원 8명을 비롯해 수행공무원 등 11명이 참석했다. 업무연찬회를 통해 북한의 경제발전 장기전망 및 인천-개성연계 발전방안과 개성공단 진출과 정책지원 방안 등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남북교류촉진특별위원회는 이번 금강산 업무연찬회를 통해 북한의 현 실태를 직접 체험하고 통일의를 제고하는 기회로 삼았다.

## 구도심권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지난해 2월에 구성된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구도심권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1년 6개월이 되는 지난 8월 8일 특위활동을 마쳤다. 특별위는 이주삼 위원장을 중심으로 김을태, 황인성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으로 구성돼 구도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정책들을 제안하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구도심권의 개발업무를 전담하는 ‘도시균형건설국’ 신설을 제안하고 구도심권 개발을 제도적,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했으며, 구도심권 개발의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자료제공 \_ 인천시의회 공보팀 (440-6054)



## 중구 무의도 어촌체험 마을 조성



중구에 어촌체험 마을이 생긴다. 중구는 무의도에 총 사업비 5억여원을 투입해 갯벌체험광장, 세족장, 사각정자, 갯벌로 가는 침목도 등의 시설물을 갖춘 어촌체험 마을을 조성하기로 했다. 올해 안에 조성공사가 마무리되면 민간단체 운영을 통해 갯벌관찰과 수산생물관찰, 조개잡기 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문의 \_ 중구청 (760-7042)

## 동구 직원과의 격의 없는 대화시간 마련



동구는 지난 7월 29일 기능직 공무원 79명 대상으로 합리적인 인사운영 방안 모색을 위해 격의없는 대화시간을 가졌다. 임경환 부구청장 주재로 마련된 이번행사는 최근 구의 하위직 공무원의 승진적체 심화로 인해 침체되고 있는 공직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직원들의 인사고충과 애로사항을 하반기 인사운영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문의 \_ 동구청 (770-6152)

## 남구 새청사부지 용현3동 군부대 자리로

남구청사 신축부지로 남구 용현3동 군부대 부지가 적합하다는 용역결과가 발표되면서 신청사 부지가 확정됐다. 지난 7월 15일 개최된 ‘남구청사 신축 후보지 최종 용역보고회’에 따르면 송의동 경인교대부속초교 부지에 비해 용현 3동 군부대 부지가 근린입지 여건과 부지분석에 높이 평가됐다. 또한 남구의 재생과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부지로 파악돼 최종 낙점됐다.

문의 \_ 남구청 (880-4033)

## 연수구 성화맛이 축제

연수구는 ‘제16회 아시아육상경기대회’의 성화를 맞이하기 위해 축제를 개최한다. 8월 30일 구청광장에서 구립관현악단과 아나이스 치어단 공연, 민경초 밸리댄스, 한승기 밴드 등의 축하공연이 펼쳐진다. 연수구의 성화봉송 구간은 인천상륙작전기념관-여성의 광장-건영아파트-동남아파트-연수구청-연수1차 아파트-대림아파트-선학사거리로 예정됐다.

문의 \_ 연수구청 (810-7085)

## 부평구 부평역사박물관 설립



부평구 삼산택지개발 지구 내에 역사박물관이 생긴다. 지난 7월 27일 부평구는 박윤배 구청장을 비롯해 지역인사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부평역사박물관 기공식을 가졌다. 박물관에는 과거 부평지역에서 사용됐던 생활용품과 농기구가 전시되고 민속사료관, 지역의 역사 및 변천사 등을 보여주는 역사관도 설치될 예정이다. 내년 6월에 개관할 역사박물관은 역사속에서 현재를 조명할 수 있는 학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문의 \_ 부평구청 (509-6036)

## 계양구 소음 막는 방음림조성



계양구는 최근 급증한 통행량으로 인해 소음이 심한 병방동 경명로 주변 지역에 방음림을 조성하고 있다. 지난 5월부터 공사에 들어갔으며 해송, 잣나무, 메타세콰이어 등 11종의 나무 7천300여 그루를 심어 850m길이의 방음림을 조성할 예정이다.

문의 \_ 계양구청 (450-5651)

## 서구 ‘도시보건지소 시범사업 대상’에 선정

서구지역이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도시보건지소 시범사업대상’에 전국 7개 지역 중 한곳으로 선정돼 국고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의료보건소가 빠르면 오는 10월에 설치된다. 시범보건소는 만성질환관리, 방문보건, 재활사업 지역사회연계 등을 중점사업으로 펼치고 금연과 영양, 운동처방, 모자보건 등의 선택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문의 \_ 서구보건소 (560-5010)

## 강화군 국수산에 삼림욕장 조성



강화군 내가면 국수산 일대 15만평에 삼림욕장이 조성될 예정이다. 국수산 삼림욕장에는 편의시설을 갖춘 삼림욕장을 비롯해 서해바다를 볼 수 있는 전망대와 물놀이장, 배드민턴장과 지압보도 등을 설치해 오는 11월에 개장할 예정이다.

문의 \_ 강화군청 (930-3064)

## 셀트리온 준공식 열려

셀트리온이 지난 7월 25일 송도국제도시 내 ‘바이오 의약시설 및 R&D센터’에서 준공식을 가졌다. 셀트리온은 국내 최초의 대규모 생물 의약품 생산시설을 마련하고 국내 바이오 신약개발에 나선다. 또 앞으로 세계적인 생명공학회사로 크기 위해 올해 3개 신약 품목의 자체 개발을 시작으로 2010년까지 1천500억원을 투자해 30개 신약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또 셀트리온은 준공식을 통해 암치료제 개발 전문업체인 이케니온(Igeneon)사와 대장암 치료용 바이오 신약을 공동 개발하는 계약조인식을 가졌다. 이날 준공식에는 안상수 시장을 비롯해 셀트리온 관계자, 지역국회의원, 시의원 등 500여명이 참여했다.



## 무공해 교통시스템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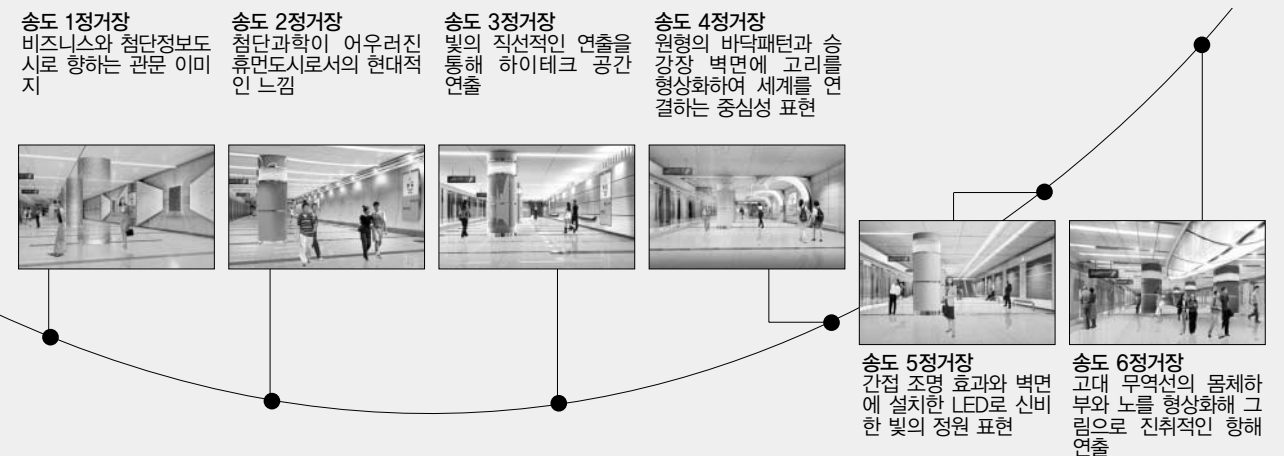
송도국제도시, 영종지구 그리고 청라지구 등에 무공해 최첨단 신교통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환경친화적인 국제도시 건설을 위해 교통혼잡이 없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는 최첨단 경량 전철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객수요에 따라 차량 수를 조정할 수 있는 LRT(Light Rapid Transit)방식과 택시와 같이 4~5명이 타고 주로 국제업무지역 등의 인구밀집지역을 운행할 수 있는 PRT(Personal Rapid Transit)방식이 도입될 예정이다. 경제자유구역청은 국토연구원에 의뢰한 신교통시스템 도입 용역결과에 따라 2008년에 신교통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이다.

문의 \_ 인천경제자유구역청 (453-7083)

## 송도국제도시 테마지하철 역사(驛舍)

송도국제도시 내에 이색적인 지하철역이 생긴다. 지난 7월 29일 우리시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송도국제도시에 어울리는 고품격의 정거장을 만들기로 했다. 2009년 개통 예정인 송도 내 정거장 6곳에 역세권의 특성과 어울리는 테마를 선정해 기존의 정거장과는 차별화된 설계를 할 예정이다.

새로 설계되는 테마 정거장은 지하공간의 개방감을 주기위해 자연채광과 자연환기를 할 수 있도록 했고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해 인간적인 공간을 구현할 계획이다. 또한 불연재 등의 재료를 사용해 안전대책에 힘쓰고 정거장 외부출입구를 인접건물과 연결통로를 설치해 주변 역세권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문의 \_ 도시철도건설본부 (451-2815)



# 지갑은 가볍게 장바구니는 무겁게

우리민족의 최대 명절 한가위. 오랜만에 맞는 연휴라고 즐거워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제수 준비다, 가족들 먹거리다 해서 주부들에게는 명절증후군이 생기는 때이기도 하다. 이럴 때 손쉽게 추석 장을 볼 수 있다면 명절이 오는 게 결코 두렵지만은 않을 것이다.



## 추석 장보기, 여러번 다양한 곳에서...

지난해 추석을 맞아 한국소비자연맹 인천지회가 13개 백화점, 할인매장, 재래시장, 일반가게 등을 대상으로 주요 제수용품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한 곳에서 모두 구입할 경우 백화점이 일반가게보다 61.42% 가량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에 비춰 보더라도 추석 장은 두어 번 나눠서 보는 것이 좋다. 값이 오를 확률이 크거나 오래 보관해도 괜찮은 과일, 육류, 전과류, 건어물 등은 미리 사두는 것이 요령이다. 보통 과일은 추석 6일 전이, 생선은 추석 전날이 가장 싸다는 통계치가 나와 있다. 수산물과 건어물은 큰 장을 이용해서 구입하고 나물과 야채류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청과류는 청과물 도매시장에서 구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장보기를 해결한다.



## 24시간 쇼핑이 좋다

신세대 주부라면 인터넷을 이용한 장보기의 재미를 무시할 수 없다. 다양한 이벤트와 가격 혜택을 두루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 '하나로클럽(<http://shopping.nonghyup.co.kr>)'은 농협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인 만큼 정보와 함께 저렴한 가격에 신선한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다. 수협도 할인점 바다마트와 함께 쇼핑몰 'e-바다마트(<http://shop.suhyup.co.kr>)'를 운영하고 있다. 김, 미역, 멸치, 오징어, 꽃게, 새우, 젓갈 등과 함께 수산물 가공품을 판매하고 있다. '인터넷우체국([www.epost.go.kr](http://www.epost.go.kr))'은 주로 산지 직송 제품을 취급하기 때문에 신선하다. '한냉쇼핑몰([www.hannaeng.co.kr](http://www.hannaeng.co.kr))'은 유통에서 조리법, 가격까지 육류에 관한 전반적인 것을 볼 수 있다.

## 과일, 채소의 천국 농산물 도매시장



과일은 농산물시장에서 구입하면 아주 싸게 살 수 있다.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구월농산물도매시장과 삼산농산물도매시장은 전국 각지에서 올라오는 과일과 채소들로 인천의 새벽을 가장 먼저 여는 곳이다. 이곳에서는 경매사, 중도매인, 매매인이 참가해 새벽 2시 반부터 경매가 시작된다.

보통 도매상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오전 5시부터 장이 서지만 여유 있는 장보기를 위해서는 오전 8시부터 12시 사이에 들르는 것이 좋다. 도매시장이라는 원래의 기능에 충실하도록 도매를 원칙으로 하고 소비자들에게는 소매상인에게 판매하고 남은 상품만을 판매하도록 권장하고 있지만 소비자들도 시간만 잘 맞추면 질 좋은 상품을 시중가보다 10~20%까지 싼 값에 구입할 수 있다. 추석에는 보통 운영시간을 오후

5시까지로 연장한다. 폐장시간인 오후 5시 무렵엔 청과시장 주변으로 떨이가 이뤄져 싼 값에 구입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 나물·수산물은 재래시장에서

나물류나 건어물, 전과류 등은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재래시장이라고 해서 주차가 불편하다거나 바닥이 질척거려 지저분할 것이라는 편견은 이제 버려도 좋다. 신포시장, 송도시장, 신기시장, 진흥시장, 현대시장, 창대시장 등은 현대화 사업을 최근에 마쳐 쾌적한 환경에서 장을 볼 수 있다.

특히 채소 값이 많이 올랐을 때는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예전처럼 많이 사지 못해 반근이나 반단 등 조금씩 사가는 사람이 많은데 그럴 때 재래시장이 제몫을 하기 때문이다. 조금씩 구입하는 것도 가능하거나 조금씩 덩으로 얻는 재미도 쏠쏠하다. 대형 마트에서는 물품들을 4~5개씩 묶어서 파는 것이 대부분이라 원래 사려고 했던 것보다 많이 사게 되고 싸다는 생각에 아무 생각없이 많이 사는 것은 오히려 쓸데없는 지출을 늘여 적자 가게부를 만들게 된다.

수산물은 연안부두의 인천종합어시장이나 소래포구에서 구입하는 것이 신선한 수산물을 싼 값에 구입할 수 있는 비결이다. 수산물의 경우는 미리 사서 손질한 뒤 냉동실에 보관하면 되므로 추석에 임박해서 구입하기 보다는 좀 여유를 갖고 구입하는 것이 현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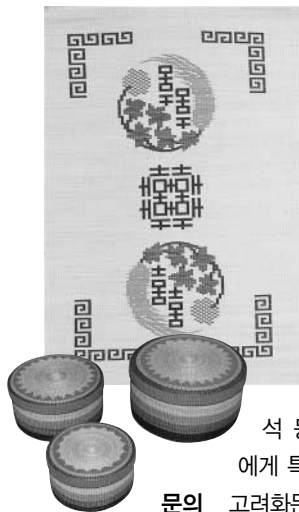
# 추석 선물로 ‘자연’을 주고받는다

명절에는 그동안 고마웠던 분들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 우리 고유의 미덕이다.

선물 한 가지를 하더라도 우리 인천에서 생산되거나 인천을 대표하는 것을 선택한다면 그 인기는 하늘 높을 줄 모를게다.

부모님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강화 인삼이나 약쑥도 좋겠고, 간단한 과일로도 선포도가 제격이다.

## 순백색 왕골의 고운 결 강화 화문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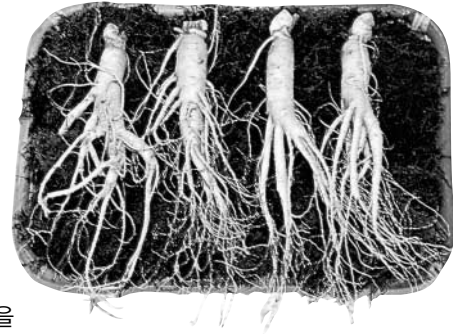
강화 화문석은 다른 지방에서는 거의 나지 않는 순백색 왕골로 만들기 때문에 결이 고운 것이 특징이다. 화문석 농가에서 고드레들을 이용해 부녀자들이 손가락 하나 하나로 엮어내 우리 조상의 멋과 우아함이 서려 있다. 땀 흡수에 좋고 통풍이 잘돼 여름철이면 강화도는 화문석을 사려는 이들의 방문이 이어진다. 큰 돛자리 말고도 꽃삼합, 화방석 등 양종맛은 제품들은 외국관광객들에게 특히 인기를 끈다.

문의 \_ 고려화문석 933-6911

## 몸 보신에 최고 강화 인삼

강화인삼은 고려인삼의 원산지인 이미 700여년 전부터 재배가 시작됐다. 인삼을 키우기 위한 기후와 토양은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강화는 인삼 재배의 최적지이다. 강화도는 특히 6년근 인삼이 유명하다. 강화 인삼을 사려면 강화인삼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강화인삼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수십 개의 업체가 모여 있어서 편리하게 보고 살 수 있다.

문의 \_ 강화고려인삼센터 933-35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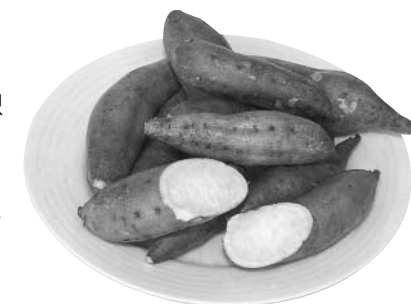
## 웰빙 건강식품 웅진섬 백색고구마

옛부터 고구마는 식물성 섬유질이 많아 변비에 상당한 효과가 있으며 베타카로틴이라는 물질이 있어 담배를 많이 피우는 사람에게 특히 좋다고 알려져있다.

웅진섬의 백색고구마는 옛부터 구전을 통해 백령도와 황해도 일부지방에서만 재배된다고 전해오고 있다. 비옥한 토양에서 신선한 바닷바람과 맑은 공기를 받고 재배된 오염되지 않은 무공해 농산물로 땅에서 나오는 과일이라하여 ‘지과(地果)’라고도 부른다.

백령도 백색고구마는 수확 후 밭에서 4~5일간 햇볕에서 말린 후 출하시켜 순수한 맛을 낸다.

문의 \_ 백령농협서해지소 863-2668 / 백령농협 836-0880



## 쌈싸름한 맛으로 입맛 돋우는 강화 순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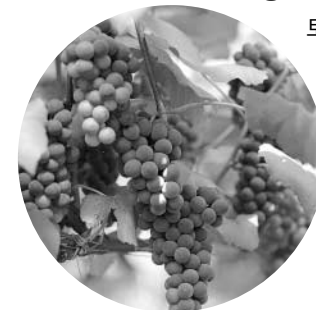
순무는 겨자향에 인삼맛을 내는 쌈싸름한 무이다. 따뜻하면서도 서늘한 기후와 염분을 가진 해풍, 그리고 대부분이 빨로형성돼 있어 미생물의 함량이 많은 강화의 토양이 빚어내는 맛이다.

순무는 특히 영양가 높은 채소로 알려져 있어 예로부터 강동육미의 하나로 임금님께 진상했던 음식이다. 동의보감에 따르면 오장을 이롭게 하고 간 기능 증진에 도움을 주어 간장질환에 이롭고 숙취해소 등에 뛰어나다고 소개돼 있으니 건강 음식이 따로 없다.

문의 \_ 강화순무작목반 최진수(011-323-0173)

## 해풍이 빚어낸 단 맛 웅진 선포도

웅진의 대부분의 섬에서는 포도가 난다. 시도, 신도, 장봉도, 연평도, 자월도, 영흥도, 선재도 등이다.



웅진의 섬들은 붉은 점밀인 황토로 돼 있다. 그 토양에 해양성 기후의 영향으로 봄이 길고 여름이 시원한데다 쾌청한 가을을 보낸다. 덕분에 그 토양에서 나는 선포도는 달기가 그만이다. 게다가 해풍에 두터워진 껍질 탓에 저장성이 좋아 가을이면 포도향이 온 섬을 뒤덮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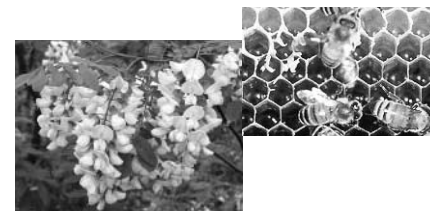
문의 \_ 웅진농협 885-2001

## 청정섬 일벌들이 만든 웅진 벌꿀

자월도의 5월은 아카시아 꽃의 향연이다. 꽃이 지는 6월이면 쪽빛 바람에 하얀 눈꽃이 흩뿌려진다. 또 가을이면 여기저기로 메밀꽃을 찾아다니는 벌들의 움직임이 부산하기만 하다.

맑은 물과 공기를 먹고 자라 깨끗한 꽃에서 물어온 꿀로 만든 벌꿀은 ‘무공해 천연 벌꿀’이다. 이 바닷바람을 맞고 자란 꽃에서 자월벌꿀이 생산되니 건강에 그만인 것은 물론이다.

문의 \_ 832-6202



## 김치 양념에 최고 까나리액젓



서해안 북쪽의 백령도와 대청도의 청정해역에서는 5월 초순부터 6월말까지 까나리가 많이 잡힌다. 이것을 천일염과 잘 버무려 밀봉한 다음 해가 잘 드는

해안에서 1년 이상 자연 숙성

시킨 후 순액을 거른 것이 웅진섬의 까나리 액젓이다. 김치를 담글때 배추 한포기에 액젓 4큰술을 넣고 양념을 하면 깊은 맛이 난다.

문의 \_ 웅진군 수산업협동조합 865-2255

## 단군설화의 효험 잇는 강화 약쑥

강화의 약쑥은 사자발쑥이라고 불린다. 잎과 뿌리, 줄기에 각각 다른 효능을 가진 약액성분을 갖고 있어 각종 질병 예방과 치료제로 널리 쓰이며 서울 제기동의 경동 시장에서도 제일로 친다.



강화약쑥은 약재 외에도 뜸쑥과 쑥한, 쑥분말, 쑥차, 쑥음료 등으로 상품화 되어 일반인들에게 판매되고 있다.

문의 \_ 강화군 양도면 인산 약쑥작목반 937-2092

강화군 화도면 내리 약쑥작목반 937-5132

## 기름기 자르르 강화 섬쌀



청정의 섬 강화. 깨끗한 물, 넉넉한 햇살, 시원한 바닷바람. 이만하면 모든 농작물이 잘 자라기에 더 없이 좋은 조건이다. 그중 강화쌀은 예로부터 임금님께 진상되었던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맛 좋은 쌀이다. 토양에 곡식이 머물고 맛을 내는데 크게 기여하는 마그네슘

함량이 많은 대신 카드뮴 등 중금속에

오염되지 않아 안전한 곡식이 지금껏 생산되고 있다.

지난 2002년부터 ‘강화섬쌀’로 전국의 밥상에 올라 밥맛을 돋우고 있다.

문의 \_ 강화농산물직판장 934-0901~4



# 명절 증후군, 흥(興)으로 넘자

명절을 준비하는 것이 보람은 있지만 힘든 것이 사실. 이젠 고생을 위로받을 차례다.

시내 여기저기에서는 추석에 맞아 떠들썩한 문화잔치가 열린다.



## 명절을 더 흥겹게, 추석맞이 민속문화축제

우리시에서 마련한 추석맞이 민속문화축제는 한가위를 더욱 풍성하게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고향을 다녀오는 사람들이나 인천에서 한가위를 보내는 시민 모두가 흥겨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여러 장소에서 다양한 무형문화재 등의 공연이 열린다.

차례를 지낸 추석 당일인 9월 18일에는 수봉공원 민속놀이마당이 흥겹다. 먼저 한가위를 맞아 소원 성취를 비는 고사가 오후 2시에 열린다. 이어 중요무형문화재 제 61호 은율탈춤공연과 중요무형문화재 제11-2호 평택농악이 공연행사로 마련된다.

공연만 보고 즐기는 것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다. 우리노래 부르기로 노래자랑이 흥겹게 펼쳐지고 민속놀이로 투호·널뛰기 대회 등도 열려 누가 최고인지 자웅을 겨뤄본다. 한바탕 신나게 놀아 본 후에는 다시 해주검무 및 서도소리 공연과 중요무형문화재 제15호 북청사자놀음 공연을 관람하며 차분하게 한가위 보름달을 맞을 준비를 할 수 있겠다.

고향을 찾은 이들이 인천으로 속속 돌아오는 날에는 인천도호부청사에 가보자. 9월 19일 인천도호부청사에서 강화용두레질노래, 삼현육각(화관무, 한량무, 교방무, 화향무), 은율탈춤, 마임 등의 공연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차례로 열린다.

아울러 민속놀이대회도 함께 마련된다. 제기, 투호, 공기, 옷대회, 송편빚기, 밤까기 등 다양한 놀이가 대회로 열려 숨씨를 겨뤄볼 수 있다. 부대행사로 열리는 노래자랑대회는 약방의 감초처럼 즐거움을 더해 준다.

굳이 대회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제기차기, 투호놀이, 널뛰기, 다듬이질, 맷돌돌리기, 팽이치기, 굴렁쇠굴리기 등 우리 전통의 놀이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마당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민들에게 열려있다.

문의 \_ 시 문화예술과 (440-4032)



## 언제 가든 즐겁다, 민속놀이 상설공연장

추석이 아니더라도 시내에 있는 상설 공연장에서는 시시 때때로 풍물 공연이 열려 시민들의 흥을 돋운다. 상설 공연장으로 굳건한 터를 닦은 곳은 수봉공원 야외공연장. 수봉민속놀이마당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곳에서는 이름에 걸맞게 매주 일요일 오후 3시 중요무형문화재 초청공연이 열린다. 은율탈춤을 필두로 인천의 무형문화재와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공연이 펼쳐진다.

상반기 공연에 이어 하반기에는 더위가 한풀 꺾인 9월 4일 '서해안풍어제'로 공연이 다시 시작된다. 9월 11일에는 범패와 작법무 공연이 준비돼 있고 이밖에 평택농악, 고성오광대, 강화외포리 꽃창굿 등 농악과 탈춤이 10월 2일까지 차례로 공연된다. (문의 \_ 은율탈춤보존회 875-9953)

부평민자역사 야외공연장에서는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풍물 상설공연이 열린다. 풍물패의 길놀이, 삼도 설장구, 사물놀이, 모듬북 난타, 민요 판소리 공연, 난타 장단 배우기, 퓨전 난타, 부평 풍물놀이, 중요무형문화재 초청공연, 풍물명인 초청공연 등이 다양하게 펼쳐지고 공연의 끝은 대동놀이를 마무리된다.

부평구청이 주최하고 풍물패 잔치마당이 주관하는 상설공연은 7월 27일부터 10월 19일까지 매주 수요일 부평민자역사 야외공연장에서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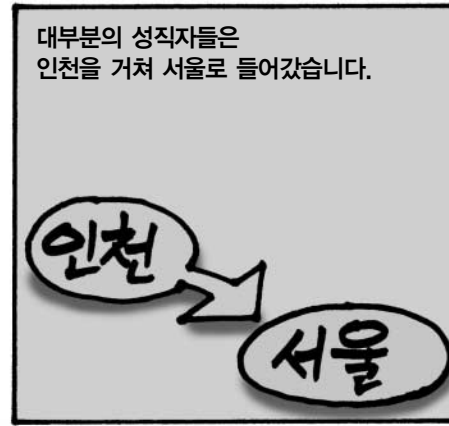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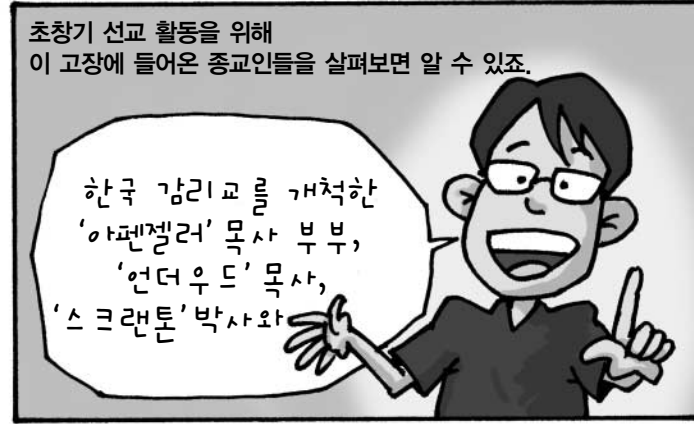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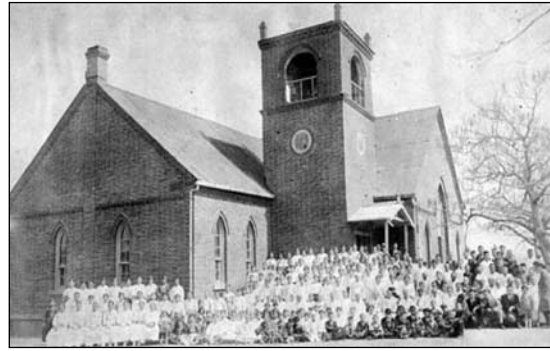
한편 풍물패잔치마당은 부평에 잔치마당 소극장을 개관하고 난타, 타악, 국악 등을 상시 공연하며 풍물의 도시 부평의 면모를 자랑하고 있다. (문의 \_ 풍물패잔치마당 501-1454)

글 \_ 정경애 (편집위원 · happyjka@incheon.go.kr) / 사진 \_ 김성환 (자유사진가 · koin1@incheon.go.kr)



# 우리나라 최초의 감리교 포교지 내리교회 이야기

그림 \_ 김신 (www.cyworld.com/sinitoon)





## 혜성(彗星)의 눈빛 가진 여자 임채경 박사



세상에 이런 눈빛, 이런 분위기를 가진 여자를 만나다니. 밥집으로 가면서 우리는 학자 스타일의 평범하고 담담한 여자를 상상했는데, 임채경(林彩敬) 박사는 전혀 그렇지 않다. 늘씬 한 키에 깡마른 체격, 백발이 섞여 쏟아지듯 흘러내리는 롱 헤어, 편하게 입은 검은 티셔츠, 그리고 흰 줄무늬가 있는 군청색 바지, 거기에다 눈을 마주치기가 어려울 만큼, 수천 개 불화살 같은 강렬한 광채를 발산하고 있는 안광. 록 연주자? 무슨 패션모델? 아니면 화가, 아방가르드? 누구든지 그녀를 처음 보는 순간 이런 인상을 받을 것 같다.

사실 그렇게 보면, 그녀에게서는 분명 마구 칠한 진한 오일 페인트 냄새가 나는 것 같고, 또 언뜻 패션 모델들이 갖고 있는 카리스마, 다시 말해서 의상을 통해 육신과 그 내면 혼을 표출하는 모델들만의 묘한 감각과 분위기를 물씬 풍기면서, 또 한편 지난 밤 늦게까지, 고막을 찢을 듯 온몸으로 드럼을 두드렸을 것 같은 그런 야성스러움이 풍기기도 한다. 모습 그대로는 전혀, 그 까마득한 광년(光年)의 공간에 인공위성과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 나사(NASA) 연구소, 거기 고다드연구소(Goddard Space Center)에 근무하는 핵심 연구원 Lim 박사가 아니다.

그 고다드연구소라는 곳이 지난해 12월 동남아를 온통 폐허로 만들었던 지진 해일 쓰나미를 예견했었고, 올여름 지구가 100년 만의 무더위를 겪을 가능성이 크다고 예견한 바로 그 연구소다. 그런 ‘권위와 높이’를 가진 연구소 연구원이, 요란한 리듬 속에 몸을 비트는 드러머, 아니면 전위 화가, 굳이 식물로 친다면 이 여름 들판에 온몸으로 형클어져 피는 들꽃 무더기 같은 분위기이니.

“오, 저한테서 그런 냄새가 나요? 그럼 말씀이지요? 그럼, 하고 싶었어요. 털어놓지만 사실 저 미술학 석사예요. 1989년에 ‘the American University’에서 학위 받았어요. 고3 때, 아버지께서는 이학부, 즉 모든 과학의 기본인 수학과를 강력하게 중용하셨지만 전 미대와 이학부를 놓고 고민 많이 했었어요. 미대 가는 것이 어려서







부터 꿈이었는데…。 지금은 그림 하고 싶어도 오히려 바빠서 못해요.”

그런 사실이 있었다면 한 가지 인상은 어렴풋이 맞춘 셈이다. 물론 나중에 들어 안 일이지만, 그녀의 작은 딸이 발레를 하는 것을 보아 그녀의 몸속에 흐르고 있을 모델 류(類)의 카리스마를 이어 받은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저토록 타는 듯한 눈빛이 생긴 것은?

그것은 이런 이유일 것이다. 매일 하늘을 올려다보고, 별을 올려다보고, 또 자신들이 하늘에 올려 보낸 별-인공위성을 올려다보면서 그와 같은 눈빛, 혜성의 눈빛이 되었을 것이다. 정병근 시인, 그 젊은 시인의 말이 맞는다.

“… / 눈먼 어둠이 내 눈을 밝힙니다 / 어두울수록 내 눈을 밝힙니다 / 어두울수록 더 깊이 빛나는 눈의 심지 / … / 별들 더욱 가깝게 옷 벗습니다 …”(『어둠 行』 부분)

이 시 구절처럼 여자의 안광이, 눈의 심지가 타오르면서 그 너머 갈증까지도 포함한 듯 환하고도 막막한 빛을 띤 것은 바로 그 ‘어둠과 별’ 때문이었을 것이다.

“실패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결혼 했었어요. 아이는 둘인데, 아들 하나, 딸 하나이고, 남자애가 14살, 그 밑 여자애가 12살예요. 아들 마슈드가 금년에 ‘토마스 제퍼슨 하이스쿨’에 입학했어요. 날 닮은 것이지…, 그 학교 미국에서도 과학 명문 고등학교로 이름이 나 있거든요. 그리고 딸애는 발레를 해요.”

인생. 삶. 미래 언덕과 눈물과 별과 영원히 혼자만의 노래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라면. 이 대단한 인천 여자, 임채경 박사에게 드리워졌던 굴곡과 그늘도 이제는 다 그녀 내면에서 저 바구니 속의 청포도처럼 향기롭게 성숙했을 것이다.

인천 인일여고, 이화여대 수학과, 연세대 수학과 석사과정, 1985년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디 아메리칸 유니버시티’ 이학석사(통계학), 다시 1989년 그 대학에서 미술학 석사, 2003년 버지니아 주에 있는 George Mason University에서 이학박사(계산정보과학) 취득. 그리고 그녀의 부친은 고(故) 임택기 인하대 수학과 교수, 모친은 인천광역시 시의회 박승숙 의장. 아, 그리고 큰 손녀 임채경 박사를 그토록 귀여워해 주시던 할아버지 임광익(林光益) 선생은 인천영화초등학교 교장이셨다.

“제가 하는 일은 직접 인공위성 같은 걸 발사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위성 원격 탐사 데이터를 연구하는 것이예요. 고다드연구소의 32개 동(棟) 중 30개 동이 지구 과학 데이터를 취급하지요. 그 가운데에서도 지구에 내리는 비, 그 강수량을 검사하는 게 제 전문이구요.”

지구에 내리는 비? 무지한 우리는 나사에서는 꼭 우주선이나 로켓을 쏘아 올리고 화성 탐사 같은 그런 일이나 하는 줄 알았는데 지구의 강수량을 검사하는 일도 거기서 한다고? 1만여 명씩이나 연구원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런 분야까지 속속들이 연구하기 위해서라고?

“음,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인공위성이 보내온 데이터를 가지고 지상의 강수량으로 측정한 수치와 비교하여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에서 필요로 하는 전 세계 농산물 수확량의 예측 모델에 들어갈 강수량의 신빙성을 검토하여 최종 보고서를 미국 농산부에 제공하는 일이지요.”

알겠다. 인공위성을 발사하려면 지구는 물론 ‘우주 공간에 관련한 모든 것(지식)’을 알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우주는 여전히 신의 세계이니까 거기를 가려면 신이 만들어 놓은 미로(迷路)를 역시 아주 조심조심 더듬어 알아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러다 보니 강수량 같은 것도 검사하고 또 예측하기도 해야 하는 것이겠지. 그리고 또 나아가 그런 지식을 꼭 인공위성에만 쓰지 않고 인류가 먹고 살아갈 식량 생산 문제에도 결부시켜 연구하는 것이겠지. 임채경 박사, 이 여자의 눈빛은 정말 이래서 그토록 번득이고 있는 것인지 모른다.

“그 31동에는 한국인으로서는 저 하나구요. 32동에 이화여대 출신 지구과학과 요원이 둘 있고, 수시로 한국에서 학자들이 오고가고 하지만, 이 분야에 인천 출신은 저 하나밖에 없어요.”

어제는 우리 인천 출신 대 학자, 우리나라 미학, 고미술사학의 태두, 우현(又玄) 고유섭(高裕燮) 선생의 따님을 만났는데 오늘은 우리 인천 출신 나사 과학자를 만난 것이다. 우리 인천에 무수한 인재들이 있지만, 이 두 사람 만으로도 연 이틀 우리는 자량과 행복, 자공과 자부심 속에서 살 수 있었던 것이다.

“좌우명이라면 첫째, 뚜렷한 목표를 세울 것. 둘째, 매초마다 상황에 맞게 최선을 다할 것, 다시 말해서 자신의 능력을 아끼지 말고 최대한 발휘할 것. 그리고 끝으로 기존의 사고 방식에 얽매이지 말 것. 살아가는 데 있어 무슨 일을 하든지 스스로 만족스럽게 느끼고 남과 나 자신에게 떳떳하면 된다고 봐요. 전 제 아이들에게도 본인들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게 하고 또 그것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주고 있어요.”

이야기 끝에 이 깡마른 여자 우주과학자는, 학생 시절부터 하고 싶은 것은 절대 포기하지 못한 고집이 센 학생이었다는 것과 그 까닭에 유학 가서 수학 대신에 미술학 석사가 되었다는 것, 그러나 당시 다른 말씀 한 마디 없이 학비를 보내 주신 두 분 부모님께는 크게 죄스러웠었다는 이야기를 덧붙인다. 물론 그쯤에서 다시 방향을 돌려 아버지께서 그토록 바라셨던 과학자가 되었지만.

몸으로 그리고 눈빛으로 온통 강렬함, 독특함, 비학자적(非學者的) 열정 같은 것을 내뿜고 있는 여자. 그러나 자세히 보면 손톱도 가꾸지 않았고 화장도 수수하다. 고작 치장이라고는 박사의 손가락에 끼워진 낡은 반지 하나. 이화여대 문리대를 상징하는 ‘梨文’이라는 글씨가 새겨진 이문형(梨紋形) 반지와 숫자 판이 둥글고 커다란 시계 하나뿐이다. 귀고리도 목걸이도 없다.

“연구와 공부가 내 치장이예요.”

다시 한 번, 마르고 날카롭게, 그리고 혜성처럼 번득이는 눈빛을 낸 것은 ‘정작 중요한 미래 산업인 항공우주 분야에 무관심한 고국에 대한 걱정과 불만’을 말할 때였다. ‘어서 원격 탐사, 이 학문의 후배를 찾아야 한다고, 그래서 지난 한 달 동안 여기저기 강연도 하고 인하대, 이화여대도 방문했다고’ 말할 때였다.

임채경 박사는 지난 8월 6일에 NASA로 돌아갔다.





## 7080 상고생의 필수품

7,80년대만 해도 부모님들은 상고를 나와야 취직해서 돈벌고 집안 살림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주산, 부기, 타자 2급은 필수였습니다. 대학진학은 10명 이내, 60%는 구미공단, 나머지는 그야말로 경리로 취직을 했죠.

책가방 무겁죠, 타자기에 보조가방까지 3년을 들고 다니면서 2급을 땀지만 졸업 후엔 컴퓨터가 보급되면서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컴퓨터는 잘 못해도 한타, 영타는 자판위에 올라서면 자동입니다. 그래도 미련이 남아 급수증을 10년 넘게 보관하다 버렸는데 얼마 전 시골에 계신 부모님께서 인천으로 이사를 오시면서 교복이랑 타자기마저 버렸다고 하시네요. 순간 지난 학창시절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는거 있죠.

대신 우리 4남매 고등학교까지 성적표 모아두셨던 것은 갖고 오셨는데 어떻게 빗바랜 성적표를 딸아이 아들이와 함께 보았습니다.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은 성적이 좋았기 때문이죠. 한때 방황했던 시절 성적이 두~욱 떨어진 것 빼고요.

사진 한 장 없는게 아쉽지만, 부모님께서 제게 큰 보물을 주셨듯이 저도 우리 아이 성적표를 빠뜨리지 않고 모아두었다가 시집 장가갈 때 선물로 줄까 합니다.  
노미옥 (남동구 만수 6동)

## 일기장은 오랜 나의 친구

요즘의 나는 일기대신 육아일기를 쓴다. 학창시절에는 거의 매일을 쓰다시피한 일기. 시골 서랍이나 박스 속에서 먼지를 수북이 뒤집어쓰고 주인의 손길을 기다리는 나의 일기장과 메모장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썼는지 몇 권이나 되는지 정확히 알수는 없지만 그곳에 있다. 30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에도...

오랫동안 가지고 있고 싶어서, 너무나 소중해서 지니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이젠 소중한 나의 친구가 되어버린 나의 일기장들. 철자도 엉망이고 문장도 어색하고 웃음이 나올 것 같은 단어선택에도 정경기만 하다. 그 시절 내가 무슨 생각을 했고 무엇을 고민했는지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나의 과거의 친구.

10년 전의 일기 속에는 짝사랑도 있고 내 성적도 있다. 가끔씩 꺼내어 펼쳐보고 미소를 지을수 있게 도와주는 나의 일기장은 오랜 나의 친구이자 없어서는 안 될 애장품이 되었다.

지금은 아이들의 성장을 기록하는 육아일기를 쓰고 있지만 그



아이들이 자라고 나면 난 또 내 서른 몇 해의 일상들을 징검다리를 건너듯 그렇게 띄엄띄엄 적고 있을 것이다. 그것들 또한 내 소중한 친구가 되어주리라...

윤금숙 (부평구 부평2동)

## 나의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해준 메달

지금까지는 별다른 애장품이 없었다. 드디어 지난 4월 내게도 오직 내게, 보고만 있어도 기분이 좋아지는 물건이 생겼다. 반복되어 가는 하루 일상에 지쳐가고 있을 때 게시판에 붙은 마라톤 대회 포스터를 보게됐다. 뭔가를 할 수 있다는 내 자신에 대한 자신감과 남편과 아이들에게 나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가족의 응원에 힘입어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정말 열심히 뛰었고 힘들면 걸었다. 그것도 잠시 가슴이 터질 것 같고 숨이 차 헉헉거리며 '내가 이걸 왜 했을까 미쳤지 미쳤어' 하며 후회하고 있을 때 저 멀리 큰 아이가 보였다. 아마도 내가 오지 않아 마중 나왔나 보다. 갑자기 뽀빠이가 시금치를 먹었을 때처럼 힘이 났다. 내 옆에서 "엄마 힘내. 조금만 가면 돼. 파이팅" 소리치며 같이 뛰어준 아이 덕분에 사람들에게 많은 박수를 받으며 완주 메달을 받았다.

지금도 일하다 힘들고 짜증날 때면 그 메달을 걸어본다. 그 때의 감격이 온 몸에 퍼져 기분이 좋아진다.

내 입가에 미소를 머금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이런 물건이라면 애장품으로 삼아도 문제없겠죠?

손기정 (계양구 작전동)

## 종이학

이번 주제를 보고 머리를 스치는 동시에 책상위에 학이 가득 든 유리병에 눈길이 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 혼한 천마리 학이라며 별 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겠지만 저에게 단하나뿐인 소중한 첫사랑을 갖게한 애장품입니다.

초등학교 시절 이곳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친구 또한 몇 없을 때 같은 반에 선머슴이라 불리는 여자아이가 다가와 저의 제일 친한 친구가 되어주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까지 전 그 아이에게 제일 친한 친구였고 그 아이는 저에게 없어서는 안될 소중한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발렌타인날 고백하기 위해 며칠 밤을 새며 학을 접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일산으로 이사를 간다는 말이 끝나기 무섭게 며칠 뒤 가버렸습니다.



어린 나이에 어찌나 슬픈지 세지도 못할 밤을 뜬눈으로 지새웠습니다.

주지 못한 학은 버릴 수도 없어 제 책상위에 놔두었는데 5년이 흐른 지금 제가 아끼는 애장품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항상 밝고 웃는게 이쁜 김용주. 잘 지내냐? 보고 싶다.

김상진 (부평구 부평1동)

## 297권의 학창 시절 노트

1948년, 계양구에 있는 부평초등학교(당시 교명, 계동국민학교)에 입학했다. 국민 소득 50불을 맴도는 가난에다, 3학년 초에는 6·25 동란까지 겪어 한층 더 경제난에 시달려야 했던 시절이었다. 어엿한 학용품 한 점 구경하기 어려웠다. 그러기에 쓰레기장을 뒤졌고, 교실 마루 밑을 훑었다. 연필과 지우개를 양손에 움켜쥐고는 기뻐 뛰었다.

그래 너무 귀했나 보다. 다 쓴 노트를 보관하기 시작했다. 초등 3학년까지의 것은 난리가 난 통에 오간데없지만, 4학년부터 대학까지의 노트를 보물처럼 여겼다. 1951년부터니까, 4·50년 넘게 간수하고 있는 셈이다. 줄곧 인천에 있는 학교(송도중, 인천고, 인천교대)에 다니면서 초등학교 51권, 중학교 104권, 고등학교 126권에다 대학 노트 16권 등, 모은 노트가 모두 297권! 남아 보잘것없어 보이거나 문구의 발자취를 더듬을 수 있어 귀하기 짝이 없다.

1952년까지 이면지를 묶어 씌, 지질은 마분지를 겨우 벗어남 - 1953년 공산품 노트 등장 - 1955년까지 10매와 12매 짜리 작은 32절지 - 1956년까지 잉크와 펜촉 사용 - 1957년 대학 노트와 만년필 쓰기 시작 - 1965년 초에도 볼펜글씨는 안 보임. 그 밖에도 교과명의 바뀜과 주당 교과 시간 배당 등, 우리 교육의 변천사도 엿볼 수 있다.

컴퓨터 시대에 1950·60년대의 노트! 필체의 흐름도 한눈에 볼 수 있는 학창 시절의 보고이기에, 나만의 귀한 애장품이 아닐 수 없다.

홍성덕 (부평구 청천1동)

## 삶에 향기를 더해진 플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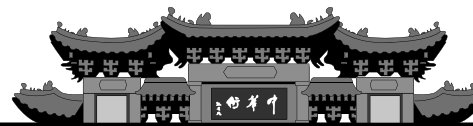
"엄마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게 뭐예요?" 언젠가 초등학교 다니는 딸 아이가 학교 숙제라며 이런 질문을 던졌다. "당연히 너희 삼남매지. 너희들이 엄마의 희망이자 미래요 꿈이잖아." "그런 것 말고요. 엄마가 평소 좋아하거나 아끼는 물건 같은 거

요." "글쎄 뭐가 있을까? 조금 더 생각해 봐야겠는데..."

한참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자 스스로 자괴감이 들면서 학창시절 생활형편 때문에 제대로 된 악기 하나 배워 두지 못한 것이 늘 한으로 남아있다

는 사실을 발견했다. 늘 생각으로 끝났지만 나 혼자만이 즐기고 만족할만한 악기를 한 개쯤 능숙하게 다룰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이때부터 몇날며칠을 고민한 끝에 소리도 맑고 청아하며 은빛 반짝이는 플룻이 좋을 것 같아 주위 사람들의 조언을 들어가며 약간의 무리를 해서 플룻을 가지게 되었다. 나 없는 사이 아이들이 만져서 고장이라도 날까봐 화장대 속에 숨겨두고 배우기 시작한게 벌써 햇수로 5년. 중간에 사정이 있어서 끊기도 하고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지금은 내가 생각해도 제법이라는 생각이 들곤한다. 가끔씩 붙어보는 아름다운 선율에 나도 몰래 마음이 넉넉해지고 지친 삶에 활력을 주는 것 같아 더없이 소중하다. 우리 집에서 내가 가장 아끼는 애장품 1호라고 해도 무색하지 않을 플룻. 가끔 반짝반짝 윤이 나게 닦아 두는 것 만으로도 큰 부자가 된듯 마음이 넉넉해진다.

조효순 (부평구 삼산동)



## 제4회 인천-중국의 날 문화축제

10월 7일~9일 (3일간)

중구 차이나타운 · 자유공원 일원

www.inchinaday.com



## 다음달 테마는 ‘책’, ‘가을풍경’

다음달 테마는 ‘책’입니다. 가을을 맞아 그동안 읽은 책 중에서 기억에 남는 글귀나 함께 읽어볼 만한 책을 소개해 주세요(200자 원고지 3매). 사진의 주제는 ‘가을풍경’입니다. 책에 실린 분께는 작은선물(문화상품권 1만원권 1장)을 보내드립니다. 사진을 돌려받기 원하시는 분에게는 돌려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실 곳 \_ 우편번호 405-750 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25(구월동 1138번지) 인천광역시청 공보관실 <굿모닝인천> 독자마당 담당자 앞 / 인터넷 신청 : www.incheon.go.kr → 굿모닝인천 메뉴 클릭 → 독자마당에 올려주세요. 마감은 9월 18일까지입니다. 응모하시는 분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하셔야 접수가 됩니다. (문의 \_ 440-2072)



## 이번 달 주제 ‘애 장 품’



### 명품(?) 기타

남편이 중학교 3학년때부터 치던 기타입니다. 그 당시에는 꽤 좋은 기타였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도 꽤 쓸만합니다. 지금도 교회에서 찬양을 인도할 때 남편에게 요긴하게 쓰이는 기타입니다. 지금은 저도 이 기타를 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의 애장품이 된 기타, 너무 소중한품니다.

한수진 (부평구 산곡1동)

### 곰 손이는 내동생

얼마전 송도월드카니발에서 여러 게임을 시도한 끝에 곰돌이인형이 뽐혔어요. 자기 몸집만한 인형을 끌어안고 아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곰손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작은 아이의 여동생이 되고, 줄지에 전 세 딸의 엄마가 되었네요.

최승희 (서구 검암동)



### 나의 썬타~

세차를 끝내고 기쁜 마음에 강화도에서 드라이브를 즐기며 한컷 찍었죠. 세차하긴 힘들어도 반짝이는 이놈만 보고있으면 흐뭇합니다. 할부금만 끝나면 걱정끝!

문희수 (남구 주안2동)

### 여행의 필수품 슬리퍼

3년전 신희여행 갈 때 5천원을 주고 구입한 슬리퍼입니다. 그 후 출장을 갈때도 휴가를 갈때도 어디든 떠나면 꼭 챙기게 되는 슬리퍼...

하도 여기저기 신고 다녀서 조금 찢어지고 낡았지만 완전히 못 신게 되는 그날까지 우린 이 슬리퍼와 함께할 예정입니다.

사진은 얼마전 시어머니 생신을 맞아 치악산을 다녀오면서 깨끗한 계곡물에서 찍은 슬리퍼입니다.

정인숙 (남구 용현5동)



### 나의 수면 파트너

사회초년생시절 사회선배가 지각하지 말라며 사준 선물이다. 대학을 막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함께한지 벌써 10여년이 훌쩍 넘었다. 이 선물엔 항상 부지런하고 남들보다 일찍 아침을 시작하는 성실한 사회인이 되라는 선배의 마음이 항상 느껴지는 물건이다. 그래서 내겐 더 없이 소중한다. 나의 애장품 알람시계... 다음날 아침이면 어김없이 날 깨워줄 널민기에 항상 편안한 잠을 청해본다.

박우영 (남구 도화2동)



### 사랑 주사위

LIPS, TOES, NIPPLES, BOOBS...

주사위 6면에 쓰여있는 단어입니다. 단어의 뜻을 아셨다면 주사위의 용도를 눈치 채셨을 겁니다. 미국에 사는 친구가 선물한건데 신희부부(물론 금슬 좋은 기성부부도 포함)들의 장난감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주사위 한판? 미성년자들은 굴리기 절대 금지.

홍태훈 (성남시 분당구)

## info box

### 아시아육상경기대회 관련 교통통제 합니다

제16회 인천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경보경기개최에 따라 경보경기 구간에 차량을 전면 통제하게 되었습니다.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불편하시더라도 시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바랍니다.

#### •경기일정

– 경보경기 (남) : 9월 2일(금) 오전 7시 30분 출발

– 경보경기 (여) : 9월 2일(금) 오전 9시 30분 출발

•경기장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경원로 일원

•참가인원 : 선수, 지도자, 심판, 자원봉사자 등 200여명

•경기코스 : 동춘역 사거리 → 인천광역시수질환경사업소 (1km 순환코스)

•통제시간 : 9월 2일(금) 오전 5시 30분 ~ 오후 1시

문의 \_ 인천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440-8111)

### 추석절 부평묘지공원 차량 통제합니다

올해 추석부터는 부평묘지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여러분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묘지공원입구에서부터 차량 진입을 전면 통제하오니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대중교통과 지하철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 차량을 이용해야 하는 시민께서는 차량통제일(추석연휴 3일간)이 아닌 날을 활용하시는 등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기간 : 9월 17일 ~ 19일 (3일간)

•장소 : 부평묘지공원

문의 \_ 시 가정청소년과 (440-3952),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507-1207)

### 제27회 시민상 시상합니다

10월 15일 제41회 시민의 날을 맞아 알차고 밝은 지역사회 건설에 기여한 시민과 어려운 곳에서 묵묵히 맡은 바 임무를 다하는 시민을 발굴해 영예로운 시민상을 수여합니다.

•시상부문 및 인원 : 3개부문 9개 분야 10인 이내

– 사회공익상 부문(6인), 효행상 부문(1인), 산업발전상 부문(3인)

#### •자격요건

– 2005년 10월 15일 현재 인천광역시 관내에 5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시민으로서

– 시상 부문별 공적내용이 현저한 시민

#### •추천권자

– 군수·구청장(10), 유관기관장(6), 사회단체장(16), 지방언론사대표(5) 등

– 기타 시민단체·일반시민도 추천권자를 통하여 추천가능

#### •추천자 접수

– 접수기간 : 9월 12일(월) ~ 21일(화)

– 추천서류 :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공적조서 1통, 이력서 1통, 공적증빙서류 1통

– 접수처 : 인천광역시 자치행정국 총무과

– 접수방법 : 접수기간 근무시간내 직접 접수하거나 우편접수

#### •시상

– 일시 : 10월 14일(금)

– 장소 : 제41회 시민의 날 기념행사장

– 시상내용 : 상패

문의 \_ 시 총무과 (440-2413)

## 인천대공원 어린이동물교실 열립니다

인천대공원에서 새롭게 어린이 동물교실의 문을 엽니다.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기간 : 9월 1일(목)~10월 31일(월) (매주 화요일 ~ 금요일)

•장소 : 인천대공원 어린이동물원

•대상자 : 우리시 관내 유치원, 보육시설 등 단체

•수강료 : 무료

•교육 시간 및 내용

교육 시간				교육 내용	교육 장소	비 고
1회차	2회차	3회차	시간			
~10:10	~11:10	~13:10		교육준비	동물원 교육실	VCD상영
10:10~10:20	11:10~11:20	13:10~13:20	10분	교육안내 (동물소개, 에티켓)	동물원 교육실	
10:20~11:00	11:20~12:00	13:20~14:00	40분	동물교육 및 체험 (먹이주기,만지기등)	동물원 교육실	
11:00~	12:00~	14:00~		동물관람	동물원	자체관람

#### •신청안내

– 접수기간 : 8월 16일(화) ~ 접수완료시까지

– 교육인원 및 횟수 : 1회 40명 정도, 신청기관별 2회 이내 (신청미달시 추가 가능)

– 교육일자 : 신청기관별 희망일자 우선배정(선착순)

– 교육당일 오전 등으로 미 교육시 교육일정 협의 후 실시

신청 및 문의 \_ 인천대공원 대공원관리과 조경생태팀 (440-4953)



### 내겐 너무 특별한 'CD'

제 남편은 결혼 후 중요한 시험을 치렀습니다. 클래식 음반 모으는게 취미인 남편은 시험을 앞두고도 점심을 굶어가며 좋아하는 음반을 모았다고 하더라고요. 합격소식을 들은 날, 갖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던 음반 중 하나를 남편에게 선물했습니다. 남편덕분에 천 장 가까운 CD 음반이 있지만, 베를린 필과 협연한 다비드 오이스트라하의 모차르트 바이올린협주곡 음반이 '내겐 너무 특별한 CD'가 됐습니다.

최선옥 (부평구 산곡동)





제11기 국악문화학교 수강생 모집

인천에서는 유일하게 운영되는 인천 국악회관의 국악문화학교에  
서는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강사진으로부터 국악을 배울 수 있  
는 제11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 수강기간 : 9월 12일(월) ~ 12월 3일(토)
- 접수기간 : 8월 8일(월)부터
- 접수방법 : 방문, 인터넷, FAX, 전화 접수
- 모집분야 : 가야금, 민요·장구, 풍물, 한국무용, 판소리, 모든  
북, 해금, 대금, 단소
- 기 타 : 만 65세이상 경로우대자 및 장애인에게는 무료강습  
(단 인원제한)

문의 \_ 국악문화학교(875-4644, 876-8364  
FAX 876-8367 / www.kukakhall.com)

국가청렴위원회가 새로 출범했습니다

부패문제에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처해 나가기위해 출범  
한 ‘부패방지위원회’가 부패방지법의 개정으로 미래지향적이고  
긍정적인 의미를 가진 ‘국가청렴위원회’로 새롭게 출범(2005년 7  
월 21일)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개정된 부패방지법에는 부패행위에 대한 개념의 확  
대와 함께 제도개선 기능을 강화하고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검토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제도가 세계 수  
준으로 개선되었습니다.

〈국가청렴위원회가 하는 일〉

- 국가차원의 반부패 정책방향의 수립과 평가
- 부패신고접수·처리와 신고자 보호·보상
- 부패유발 법규와 구조적·고질적 분야의 제도개선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채용계획 공고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직렬·직류	직 급	선발예정 인원	필기시험과목
계		187명	
사회복지직	9급	64명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복지직(장애)	9급	3명	
보건연구직	연구사	17명	보건학, 역학, 미생물학
소 방 직	남자 소방사	100명	(필수 3) : 국어, 국사, 영어
	여자 소방사	3명	(선택 1) : 소방학개론, 행정학중 택일

2. 응시연령

직렬·직류	직 급	응 시 연 령	해 당 생 년 월 일
사회복지직	9급	18세이상 32세이하	’72. 1. 1 ~ ’87. 12. 31
보건연구직	연구사	20세이상 45세이하	’59. 1. 1 ~ ’85. 12. 31
소 방 직	소방사	21세이상 30세이하	’74. 1. 1 ~ ’84. 12. 31

3. 응시자격

직 령	직 급	자격(면허)증 및 학력제한
사회복지직	9 급	사회복지사 3급 이상
보건연구직	연구사	의학, 치의학, 약학, 화학, 생물학, 식품학, 수의학, 식품가공학, 축산학, 낙농학, 동물학, 보건학 또는 위생공학을 전공하고 해당학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소 방 직	소방사	도로교통법 제6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 또는 대형면허 소지자

(1) 위 표에서 보건연구직의 경우는 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다)에서 상기학을 전공하고 상기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을 취득한 자 또는 면접시험최종일 현재까지 석사학위 이상 취득예정자이면 응시 가능함.

(2) 위 표와 학과의 명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단과대학장 이상 명의로 발행한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에 『우리 대학(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된 학과와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  
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4. 거주지 제한

- 사회복지직, 소방직 : 2005년 1월 1일 전일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본적지가 인천광역시로  
되어 있는 자. (단, 동기간중 주민등록 말소사실이 없어야 함)
- 보건연구직 : 제한없음.

5. 시험일정

- 원서접수 : 9월 7일(수) ~ 9일(금)
- 필기시험 : 10월 16일(일)  
※시험일정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의 공고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명사회협약의 지원과 민관 협력사업 전개
- 기업윤리경영의 지원과 부패방지 교육·홍보, 국제협력
- 지방자치단체의 자율 부패통제체제 확립 등

〈부패행위 신고안내〉

- 신고자 :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국가청렴위원회’  
에 신고 가능
- 신고대상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  
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도모 행위
  -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상기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권고·제의·유인하는 행위
- 신고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전  
화상담도 가능
  - 우편 : (110-793) 서울 종로구 계동 140-2 현대빌딩 7층
  - 상담전화 : 02)1398, 팩스 : 02)2126-0098
  - 인터넷 이용 : www.kicac.go.kr

인천의료원 무료 건강검진

지방공사 인천의료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기초 생활 수급자,  
장애인 및 의료소외계층 (비인가 시설 수용인, 저소득층 외국인  
근로자) 등 시민에게 무료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골다공증 (정형외과2)
  - 기간 : 9월 1일(목) ~ 7일(수)
  - 장소 : 지방공사 인천의료원 1층 (정형외과 2 )
  - 검진항목 : 골밀도 검사
- 간염검사 (내과5)
  - 기간 : 9월 5일(월) ~ 9일(금)
  - 장소 : 지방공사 인천의료원 1층 (내과 5)
  - 검진항목 : 간염수치 검사

•진료시간 : 오전 8시 30분 ~ 오후 4시

•검진인원 : 140명 (정형외과 2), 50명 (내과 5)

※비인가시설에서는 의료원 방문 하루 전에 미리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_ 지방공사 인천의료원 총무인사팀 (580~6478, 580~6651~5)

호스피스 교육 받으세요

1994년부터 말기암으로 고통 받는 환우의 동반자 역할을 하고 있  
는 인천호스피스가 올해 5월에 참사랑병원으로 자리를 옮겨 환자  
를 돌보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의 양성과 바른 호스피스의 의미  
를 알리는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교육을 실시합니다. 많이 참석하  
셔서 고통받는 환우의 힘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9월 1일(목) ~ 11일(목)  
매주 목요일 오전 9시 30분 ~ 12시 20분
  - 장소 : 참사랑병원(서구 가정동 511-6) 1층 회의실
- 문의 \_ 참사랑병원 호스피스 사업실 (584-5146)

제2회 인천 물사랑 사진공모전



우리시에서는 물의 소중함  
을 인식하고 물에 대한 지속  
적인 관심과 물사랑 실천 붐  
조성에 뜻을 같이하는 기업,  
시민단체, 언론과 함께 아래  
와 같이 제2회 ‘인천 물사랑  
사진공모전’을 개최합니다.

- 작품주제 : 인천지역의 물을 소재로 한 생활·자연환경 사  
진으로 물 사랑 정신을 고취시킬 수 있는 작품
- 참가자격 : 제한없음
- 출품규격 : 11"×14" (컬러·흑백 사진, 장정불요)
- 출품수량 : 1인당 3점 이내
- 출 품 료 : 없음
- 접수기간 : 9월 1일(목) ~ 20일(화)
- 심사결과발표 : 10월 7일(금)
  - 인천광역시(www.incheon.go.kr) 홈페이지 게재
  - 시상식 및 전시행사 일정은 심사결과 발표시 공지

접수 및 문의 \_ 인천광역시하천살리기추진단 (남동구 구월동  
1127 한미은행빌딩 8층 440-1518)  
인천녹색연합 (계양구 계산3동 1062 하이베  
라스 D-712, 548-6274)

여성복지관 수강생 모집

우리시 여성복지관(본관)에서는 여성의 풍요로운 삶과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직업전문교육 및 문화아카데미교육을 실시합니다.

- 모집일시 및 방법
    - 문화아카데미 : 9월 13일(화) 10:00 추첨 또는 선착순
    - 직업전문교육 : 9월 14일(수) 10:00 추첨 또는 선착순
  - 교육대상 : 인천거주 여성, 전과목 20% 범위내 남성도 모집합  
니다. (단, 발간장관리, 건강요가, 스포츠마사지, 기공태극권, 에  
어로빅, 댄스스포츠는 제외)
  - 교육기간 : 10월 5일 ~ 12월 28일 (3개월)
  - 교육과목
    - 직업전문교육 : 한식조리실습 외 29개 강좌
    - 문화아카데미 : 꽃꽂이 외 21개 강좌
  - 수강료
    - 문화아카데미교육 : 월 10,000원
    - 직업전문교육 : 교육일수 기준 주2일 이하 월 10,000원,  
주 3일 이상 12,000원
  - 유아실 운영 : 만3세 이상
- 문의 \_ 여성복지관 교육팀 (425-1362, 440-6556~8,  
women-center.incheon.go.kr)



## 농업기계 순회수리 정비교육실시

우리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기계 고장진단과 간이 수리정비를 통해 농기계의 수명연장과 기계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가을철 농업기계 순회수리 정비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현장에서 농업인 스스로 농기계를 수리·정비할 수 있도록 실습교육을 병행해 농기계의 자가진단 및 수리·정비능력 배양과 농기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전사용요령 교육도 실시합니다.

•기간 : 8월 22일 ~ 10월 6일 (32회)

•장소 : 각 지역별 순회

- 중구(8월 22일~26일)      - 계양구(8월 29일~9월 8일)
- 부평구(9월 9일)      - 연수구(9월 12일~13일)
- 서구(9월 14일~26일)      - 남동구(9월 27일~10월 6일)

※농기계 수리부품 지원 : 기종당 연간 50,000원이하 농가당 5기종까지

문의 \_ 농업기술센터 교육개발팀 (440-6385,  
http://agro.incheon.go.kr)

##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국민의 정치적 자유를 확대하고, 정치체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며 국민의 선거참여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각종 제도적 장치를 신설·보완하고, 선거운동방식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개선하는 등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었습니다.

• 주요개정내용

- 선거권자 연령 19세로 인하 및 외국인에게 선거권 부여  
▷선거권연령을 19세로 하향 조정하고, 지방선거의 경우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에게 체류지역의 지방자치단체 선거의 선거권을 부여함
- 재·보궐선거일 수요일에 실시  
▷주5일근무제 시행에 따라 토요일에 실시하던 재·보궐선거일을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와 마찬가지로 수요일에 실시하되, 투표시간은 현재와 같이 오후 8시까지로 하여 직장인들의 투표편의 도모함.
- 부재자 투표대상자 확대  
▷군인·경찰 등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만 부여하던 부재자신고요건을 선거일에 자신의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모든 선거권자로 범위를 대폭 넓혀 그동안 선거일에 근무로 인하여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던 철도기관사, 항공사승무원, 택시기사 등 헌업종사자는 물론 일반유권자에게도 선거참여 기회를 확대함.
- 기초의원회의원선거에 중선거구제 및 정당공천, 비례대표제 도입  
▷읍·면·동 단위로 확정하던 기초의원회의원선거구를 광역의원지역구내에서 확정하되 하나의 선거구에서 2인 ~ 4인을 선출하는 중선거구 제도를 도입하고, 기초의원회의

에 대해서도 정당공천과 비례대표제를 비례대표의원은 지역구의원정수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정수만큼 선출하도록 함.

- 선거인명부

▷선거인명부의 통·리별 공람 대신 구·시·군의 장은 선거권자가 당해 구·시·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등재여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함.

문의 \_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http://ic.election.go.kr)

## 컨벤션 전시 및 기획·실무교육과정을 개설합니다

YWCA인천여성개발센터에서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실무위의 컨벤션 전시 및 기획·실무교육과정을 개설합니다. 좀더 컨벤션에 관한 유익한 정보를 공유하고 효과 있는 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기간 : 9월 9일 ~ 10월 21일 / 화, 금 (오후 6시30분 ~ 9시30분) / 토 (현장견학 및 전시관 견학)

•교육내용

- Convention 및 전시 이벤트 산업이해 / Convention 기획 실무 / Convention 기획서 작성 / Convention 영업 및 수송 / Convention 등록 현장운영 / Convention Marketing 전략 / 세미나 및 포럼

•견학

- 부산 BEXCO (1박 2일) / 대구 EXCO 전시관 / 일산 KINTEX or COEX / 송도갯벌타워 (구)홍보관 등

•교육비 : 10만원 (선착순 등록)

문의 \_ 인천여성인력개발센터 김효숙 과장 (010-7244-9585)

## 인하대병원 건강강좌

인하대병원에서는 지역주민을 위한 무료 건강공개 강좌를 엽니다.

•일시 : 9월 27일(화) 오후 3시 30분

•장소 : 인하대병원 3층 대강당

•강좌내용 : 우울증의 진단 및 치료

•강사교수 : 정신과 강민희 교수

문의 \_ 인하대병원 교육연구부 (890-2640~2)

## 사업 고민

## 좌~악 펴드립니다

〈굿모닝인천〉은 매달 9만부씩 발행되어 인천시내의 공공기관과 각 가정에 배포되는 인천 최대의 인쇄매체입니다. 〈굿모닝인천〉의 유료광고가 여러분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광고료(1개월·컬러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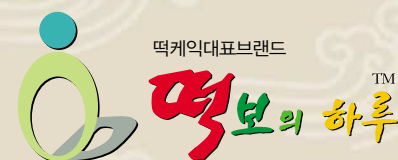
표4 (맨뒤 겉표지)	표2 (앞표지 뒷장)	표3 (표4 앞면)
2,562,000원	1,665,000원	1,281,000원

※광고 게재 등 문의사항은 공보관실 편집팀(032-440-2042, 207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생일케익도 떡이젠

“한가위 선물용  
떡선물세트  
주문받습니다.”

전임, 취임, 축하, 창립, 생일, 약혼, 결혼, 기념일  
선생님, 어르신 찾아뵈실 때, 운전면허증 만 날,  
조금이라도 기분 좋은 날엔 우리 떡, 떡케익,  
떡 선물세트는 특별한 날의 기쁨을 더해줍니다.



문의전화 1544-1582

예약주문이나 하루 전 주문하시면 인천, 부천 전 지역 무료배달해드리며,  
일반떡, 혼수떡, 돌, 백일, 답례떡등 예약하시면 제작하여 무료배달해드립니다.